

碩師學位論文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

지도교수 고창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정 영 임

2005年 8月

<국문 초록>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

정 영 입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지도교수 고 창 석

박물관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장소로서 박물관이라는 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교육의 장이다. 박물관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중요한 이유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필요할 때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계층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주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의식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바르게 이해시켜 문화재를 애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박물관이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박물관 교육은 현재까지도 전문성을 갖춘 교육담당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주지역 박물관 중 교육적 기능을 비중있게 실시하고 있는 4개의 박물관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지역 박물관의 전시는 각 박물관의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전시 자료에 대한 설명과 시대상을 조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국립제주박물관>의 경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강좌별로 난이도를 두어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으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의 민속과 자연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체험학습과 현장답사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의 향토문화 교육을 위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향토문화

*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교육은 교과 관련 향토학습의 지원으로써 박물관 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 마지막으로 <제주민속촌박물관>은 야외전시를 통해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있었으며, 19세기 제주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박물관의 전시는 관람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박물관이 대표적인 문화기관이라 할 때 통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가치인 문화를 관람객이 온전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전문직원들이 인간을 둘러싼 유·무형의 자료를 총체적으로 다루며, 문화와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둘째, 박물관과 학교 교육의 연계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박물관은 학교 교육을 돕기 위해서 유물 등 교육 자료의 대여와 학생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 교사를 위한 박물관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박물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박물관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육담당부서(Education Department)를 각 박물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학예연구사(Curator)와 동등한 신분의 교육전문가(Educator)를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박물관 교육에 있어 교육의 대상 뿐 아니라 교육 내용 또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박물관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박물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박물관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전문 강사를 확보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주지역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목적 | 1 |
| 2. 연구내용과 방법 | 3 |
| II.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 | 5 |
| 1. 박물관의 기능과 종류 | 5 |
| 2. 박물관 교육의 특성과 방법 | 11 |
| III.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 실태 분석 | 18 |
| 1. 제주지역 박물관의 일반 현황 | 18 |
| 2.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 34 |
| 1) 전시를 통한 교육 | 34 |
| 2) 전시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 | 43 |
| 3.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분석 | 60 |
| 1) 전시를 통한 교육 | 60 |
| 2) 전시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 | 65 |
| IV.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 활성화 방안 | 74 |
| 1. 전시에 대한 교육적 배려 | 74 |
| 2. 박물관과 학교 교육의 연계활동 강화 | 77 |
| 3. 박물관 교육전문가의 확보 | 79 |
| 4.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 80 |
| V. 결론 | 83 |
| 참고문헌 | 88 |
| Abstract | 91 |

표 목 차

| | |
|---------------------------------------|----|
| <표 1> 전국 박물관 현황 | 10 |
| <표 2> 문화관광부 등록 박물관 현황 | 10 |
| <표 3> 국립제주박물관 일반현황 | 20 |
| <표 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일반현황 | 21 |
| <표 5> 제주대학교박물관 일반현황 | 23 |
| <표 6> 제주교육박물관 일반현황 | 24 |
| <표 7> 제주민속촌박물관 일반현황 | 26 |
| <표 8> 제주민속박물관 일반현황 | 28 |
| <표 9> 제주신영영화박물관 일반현황 | 29 |
| <표 10> 설록차 뮤지엄 오'설록 일반현황 | 30 |
| <표 11> 평화박물관 일반현황 | 31 |
| <표 12> 아프리카박물관 일반현황 | 32 |
| <표 13> 국립제주박물관 전시 내용 | 35 |
| <표 1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 내용 | 37 |
| <표 15> 제주교육박물관 전시 내용 | 40 |
| <표 16> 제주민속촌박물관 전시 내용 | 42 |
| <표 17> 국립제주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현황 | 44 |
| <표 18> 국립제주박물관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 47 |
| <표 19>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현황 | 49 |
| <표 20>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 51 |
| <표 21-1> 제주교육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현황 | 53 |
| <표 21-2> 제주교육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현황 | 54 |
| <표 22> 제주교육박물관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 56 |
| <표 23> 제주민속촌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현황 | 58 |
| <표 24> 박물관별 전시 내용과 특징 비교 | 61 |
| <표 25-1> 박물관별 교육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비교 | 67 |
| <표 25-2> 박물관별 교육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비교 | 68 |
| <표 26> 박물관별 성인대상 교육 프로그램 비교 | 69 |
| <표 27> 박물관별 학생대상 교육 프로그램 비교 | 70 |

I. 서 론

1. 연구목적

박물관은 인류, 역사, 고고, 예술, 과학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를 조사·연구하여 문화,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이다.¹⁾ 박물관은 단순한 시설의 명칭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장소로서 국민의 문화적 안목과 식견을 높이고 문화생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사회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박물관의 사회교육은 계층별, 연령별, 특히 학력의 차이를 초월한 불특정 다수인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회와 유대를 갖고 존재하는 박물관이 사회와 시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현대적 측면에서 이미 보편화된 가치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박물관의 가치 변화는 단순히 기능상의 변화 차원을 넘어 현대사회에서 박물관의 존립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그 역사가 짧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로 국·공립박물관과 대학 박물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공개강좌나 박물관 학교, 현장 답사 등의 활동은 주최 측의 열의나 수용자 측의 호응 등의 측면으로 보아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²⁾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법률 제4410호), 1991. 11. 30(개정).

2) 이태호, 『현대계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진단과 전망 : 국립박물관의 전시행위와 강좌 운영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18집』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1997, 26쪽.

그러나 박물관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해도 이를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교육전문가가 충분하지 않아 교육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박물관 교육의 전문적 기법과 전략개발 뿐 아니라, 박물관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들 중 박물관 교육전문가들의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분야를 전공하는 박물관 종사자들과의 전문성 영역관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정립할 것이며, 다양한 대상 집단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박물관 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과 같은 박물관 교육에 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박물관이 교육적 고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박물관 분야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은 그동안 교육학의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³⁾ 그 이유는 지금까지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이 교육학자의 관심 영역 밖에 있었을 뿐 아니라, 박물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자체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학의 하위영역인 사회교육 분야에서도 박물관 교육을 사회교육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지만 박물관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다.⁴⁾

박물관이 사회교육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필요할 때 참여하는 자기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문화유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통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⁵⁾

이와 같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은 어린이, 학생, 지역주민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주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박물관의 사회교육을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바르게 이해시켜 문

3) 김인희, 『박물관 교육의 정신사적 의미』, 『박물관과 교육』,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1997, 1~23쪽.

4) 한국교육개발원, 『경기도박물관부설 사회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1988, 17쪽.

5) 한국교육개발원, 앞의 책, 4쪽.

화재를 애호하고 보존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중앙과 지역의 문화유산을 비교·교육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도 박물관 교육의 큰 의미가 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이 어떤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적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제주지역 박물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박물관의 기능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핀 다음 박물관 교육의 특성과 방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제주지역 박물관 중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비중 있게 실시하고 있는 4개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전시를 통한 교육과 전시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박물관이 수요자의 교육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적 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면담조사와 문헌조사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조사는 기존의 연구 실적을 문헌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주지역 박물관의 일반현황에 대한 내용은 제주지역에 있는 13개 등록 박물관 중 10개의 박물관을 직접 방문·조사하였다.

10개 박물관 중 전시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을 비중 있게 실시하고 있는 곳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이었다. 본 연구자는 4개의 박물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학예사와의 면담 조사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2003년과 2004년의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자료들은 모두 연구자가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

를 정리한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 내용을 통시적 관점에서 살핀 다음, 제주지역의 다른 박물관과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작업 또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2003년과 2004년 제주지역 4개의 박물관이 운영했던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실태 분석하고, 박물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사회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Ⅱ.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

1. 박물관의 기능과 종류

1) 박물관의 기능

세계 최초의 박물관이라 일컬어지는 무세이온(Museion)은 3세기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졌다. 이 박물관을 ‘무세이온’이라 불렀던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문예, 미술의 신인 뮤즈(Muse)에게 바치는 신전으로서 문예, 미술, 철학을 연구하는 장소를 뜻하였다. 이곳에는 강연실, 동물원, 식물원이 있었으며 철학자의 조상(彫像)이나 기증품, 기타 진기한 천연물 등을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갖가지 서적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곳을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무세이온은 자료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도록 중용하고 있어서 이미 일종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소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석되는데, 다만 이용 대상은 어디까지나 일부에 국한되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박물관은 가정적 소박물관 형태로 변모하였고, 이것은 공중의 감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중세까지 계승되어 왔다. 문예부흥기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박물관은 발전·증가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많은 독지가나 개인 수집가에 의하여 방대한 수집품이 중앙박물관이나 대학박물관으로 확충되었으며 여기에 학자의 출입을 허용하게 되어 실물의 연구와 교육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로마시대에 이미 줄리어스 시저는 개인 혹은 일부 특권층이 가진 미술품의 공중관람을 주장하고 그 스스로 시범을 보이기까지 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16세기 초에 와서 피렌체의 메디치(Medici)라는 사람에 의하여 소장 예술가를 위해 소장품의 일부를 공개하게 되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빈곤한 학생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시민혁명

(1784년)을 거치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종래의 일부 학자 또는 전문가의 개인 연구기관으로서의 구실이나, 또는 도시 미관을 위한 박물관 건물에서 차츰 대중의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시민의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845년 영국 의회에 의한 박물관령, 즉 □□Museum Acts of 1845□□에 따라 박물관은 공공의 비용에 의하여 유지되는 공공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박물관의 성격을 시민교육기관으로서 명백히 규정하여 그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다.⁶⁾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박물관의 개념 또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제박물관회의(ICOM) 정관에서는 박물관을 “연구와 교육, 향수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환경의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전달, 전시하며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봉사하고 대중에게 공개되는 비영리적이고 항구적인 기관”⁷⁾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환경의 물질적 증거란 예술, 역사, 미술, 과학, 기술에 관한 모든 것을 뜻하며, 이들에 대한 수집품 및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 표본 등을 총망라한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이란 그저 모으고 또 전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관광 그리고 오락에까지 그 활동범위가 넓어져 모든 방면에 영향력을 미치는 비중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박물관이 수행하는 기본 업무로서 수집, 보관, 전시, 연구 이외에도 각종 행사가 다채롭고 폭넓게 변화하여 왔다.⁸⁾

1984년 영국의 박물관협회는 “박물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물적 증거 및 관련 정보를 수집·문서화·보호·전시·해설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기관이라 함은 공식적인 운영 기구와 장기적인 목적을 가진 시설을 말한다. 전시는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적어도 대표적인 유물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람객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따라서 전시는 적절한 시간과 기간 동안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신중히 공개하고 박물관 내외에 박물관이 사회의

6) 이난영, 『博物館學入門』, 三和出版社, 1993, 21~23쪽.

7) 문화체육부, 『국제박물관협회규정집 : 정관·전문직원 윤리요강』, 1994, 9~10쪽.

8) 이난영, 앞의 책, 11쪽.

봉사기관이라는 현대적 사고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뜻한다.⁹⁾

한국의 경우 1991년에 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항에서 “박물관이라 함은 인류, 역사, 고고,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도 국제박물관회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 특히 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곳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수집, 보존, 전시, 연구 못지않게 박물관의 주요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중혁은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박물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¹⁰⁾

첫째, 박물관은 인류와 자연에 관한 모든 유형의 물적 증거 자료로써 교육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유물과 표본들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상세히 말하면, 인류, 역사, 고고, 미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 모든 분야의 자료가 박물관의 설립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박물관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므로 학습·교육과 오락을 위한 교육적이고 미적인 면에 ‘목적’을 둔다. 즉 박물관은 사회와 그 발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문화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사회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셋째,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귀중한 자료를 수집하여 잘 보존·보호하며 조사·연구를 통하여 관련 기록과 정보 자료를 문서화하고, 전시·공개를 통해 교육하고 해설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의 ‘성격’은 기업체나 상업 회사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 아니라, 수집품과 전문 직원을 두고 장기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전시하는 영구목적을 가진 조직적·항구적인 비영리기관이어야 한다.

9) 김중혁, 『한국의 박물관과 세계의 박물관』, 『문화예술』, 1993, 15쪽.

10) 김중혁, 앞의 책, 16~17쪽.

2) 박물관의 종류

박물관의 종류는 그 분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설립 운영자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 박물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박물관,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단체, 사회단체 혹은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박물관, 국·공·사립대학에서 설치 운영하는 대학박물관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국·공립박물관이며, 사립박물관은 수적으로 매우 열세하였으나 근래 개성 있는 사립박물관이 많이 설립되고 있다.

둘째, 전시 자료의 내용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종합박물관은 인문 사회 과학 및 자연 과학의 양 분야에 해당하는 자료를 종합적 입장에서 취급하는 박물관으로 박물관 내에 2개 과학 이상의 박물관 자료를 분야별로 전시해 놓은 박물관을 말한다. 전문박물관은 역사, 과학, 교육, 산업, 민속 및 자연사 등 특정 분야의 박물관 자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박물관이다. 오늘날 일반적인 경향으로 종합박물관보다 전문박물관이 많고 그러한 경향이 차츰 보편화되고 있는데 학문이나 사회, 문화의 빠른 발달과 세분화에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설치 지역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박물관의 수집품이나 전시품을 지역대상으로 나눈다면 전국 또는 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다. 한 나라의 수도 중앙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박물관은 중앙박물관으로서 그 나라의 중심, 즉 전체라는 뜻이 강해질 것이며, 시·도나 군에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은 지방 박물관으로서 지역성이 강해질 것이다.¹¹⁾

넷째, 이용자에 따라 분류한다면 공공(公共)의 박물관이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을 뜻하며, 이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공립박물관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학교박물관, 어린

11) 송춘영, 『역사 수업에 있어서 박물관 교육의 방안』, 『고문화』 제46집, 한국대학박물관 협회, 1995, 149~150쪽.

이를 위한 아동박물관, 그리고 특수한 분야의 사람들을 위한 특수박물관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의학, 자동차, 유리, 종이, 화장품, 운동구 등 각 산업체의 박물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산업박물관의 설립은 그 산업체 종사자를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차츰 해당 산업체의 소개나 선전에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어 산업체의 선전홍보 부서의 하나로써 그 기능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나누었을 때 학교 박물관¹²⁾이나 산업체의 박물관의 전시내용은 각기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미술관, 고고학박물관, 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등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각 대학의 대학박물관들이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러 대학박물관은 소속된 지역의 특성이나 대학의 특색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대학박물관 이상의 역할을 하는 곳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일반인에게도 관람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은 대학박물관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데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박물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 시설이나 인원구성으로 볼 때 일반 공개는 과중한 임무인 것이 현실이며, 이것은 대학박물관의 주기능인 조사, 연구나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각 대학이 박물관을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실물을 통한 학생의 교육과 연구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박물관은 전시위주의 운영보다는 이른바 스터디 컬렉션(Study Collection) 중심의 전시실을 운영하여 전시와 보관을 겸하면서 학생이나 교수 또는 전문가의 연구에 기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일로 생각된다.

다섯째, 전시하는 장소에 따라 실내나 실외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건물 안에 전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밖에도 건물 밖에 전시하는 실외 전시실로는 사적지, 식물원, 동물원, 민가촌락원, 유원지, 능원지 자연보존지구까지도 포함된다. 특히, 근래에 크게 유행하는 오픈 뮤지엄(Open Museum)은 야외박물관의 일종으로 19세기 중엽부터 북유럽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

12)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박물관은 대학박물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기 시작하였고 이후 널리 보급되었다. 야외박물관은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을 지향하므로 인간의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을 재현한다. 즉, 그 마을의 농가에서 행해지는 율례행사나 생활용품의 생산과정, 연중으로 이어지는 각종 행사 등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재현하여 일반 공중에게 사랑받는 박물관으로 공개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박물관은 유럽, 미국, 일본 등 각지에서 특히 많이 볼 수가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용인의 민속촌이 이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문화와 사회의 변천에 대처하는 인간의 대응 자세를 연구하는 인류학적 과제도 함께 풀어 나가고 있다.¹³⁾

2003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립·사립·대학박물관과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공립·사립·대학박물관의 현황은 <표 1>과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1> 전국 박물관 현황¹⁴⁾

| 구분 | 시도별 | | | | | | | | | | | | | | | | |
|----|-----|----|----|----|----|----|----|----|----|----|----|----|----|----|----|----|----|
| | 소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국립 | 30 | 11 | | 1 | | 1 | 1 | | 2 | 1 | 1 | 3 | 1 | 1 | 2 | 4 | 1 |
| 공립 | 49 | 2 | 2 | | 1 | 2 | 2 | | 5 | 5 | 4 | 3 | 4 | 4 | 7 | 6 | 2 |
| 사립 | 113 | 36 | | 2 | 1 | | 4 | | 23 | 7 | 3 | 9 | 3 | 4 | 4 | 9 | 8 |
| 대학 | 84 | 24 | 7 | | 1 | 3 | 6 | 1 | 6 | 4 | 6 | 5 | 6 | 2 | 6 | 3 | 1 |
| 합계 | 276 | 73 | 9 | 3 | 3 | 6 | 13 | 1 | 36 | 17 | 14 | 20 | 14 | 11 | 19 | 22 | 12 |

<표 2> 문화관광부 등록 박물관 현황¹⁵⁾

| 구분 | 시도별 | | | | | | | | | | | | | | | | |
|----|-----|----|----|----|----|----|----|----|----|----|----|----|----|----|----|----|----|
| | 소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공립 | 34 | 1 | 1 | | 1 | 1 | 2 | | 2 | 4 | 4 | 1 | 2 | 2 | 7 | 4 | 2 |
| 사립 | 109 | 33 | | 1 | | 1 | 4 | | 23 | 7 | 4 | 9 | 3 | 3 | 4 | 9 | 8 |
| 대학 | 56 | 16 | 5 | 2 | 2 | | 6 | | 1 | 4 | 4 | 2 | 4 | 1 | 5 | 4 | 1 |
| 합계 | 199 | 50 | 6 | 3 | 3 | 2 | 12 | | 26 | 15 | 12 | 12 | 9 | 6 | 16 | 15 | 11 |

13) 이난영, 앞의 책, 15~18쪽.

14)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2003, 480쪽.

15) 한국박물관협회, 앞의 책, 481쪽.

이 자료에는 제주도의 대학박물관의 수가 잘못 표기되어 있었다. 제주도에는 1개의 대학박물관이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박물관 중 문화관광부 등록 박물관의 수도 11개여야 한다. 그러나 위의 책에서는 제주도에 있는 대학박물관의 수가 2개 합계도 12로 표기되어 있어서 수정하여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2. 박물관 교육의 특성과 방법

1) 박물관 교육의 특성

오늘날의 박물관은 박물관이 해야 할 임무 가운데 교육활동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적 활동은 그 해석이나 기능이 광범위하나, 박물관이 행하는 주요 목표는 인간의 보다 충족된 생활과 더 나은 사회의 성원이 되도록 이용자에게 넓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⁶⁾

박물관 교육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점에서는 학교 교육과 같지만, 학교 교육과는 다른 대상, 방법, 내용이 있다는 점에 그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학교는 언어를 이용하여 교육하는 반면, 박물관은 실물과 전시를 이용하여 교육하며 비공식적인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박물관 방문객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박물관에 오며, 특별한 자격증이나 선행조건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방문객은 다양한 연령, 관심, 그리고 사회·경제·교육적으로 이질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다. 또 박물관은 개인이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물이나 전시 자료를 비치한다. 어린이는 책에 묘사되었던 예술·역사·과학 분야의 직접적인 실물을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박물관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라고 하는 일정한 커리큘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성과를 개발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박물관 교육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로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박물관 학습은 자발적인 학습(Spontaneous Learning)이라는 것이다. 박물관 이용자, 곧 학습자란 자유의지에 기초한 관람객이고, 그 중 많은 수는 여가를 이용한 레크레이션이거나 학습이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외적인 강제력도 없는 것이다.

박물관 교육의 두 번째 원리는 지역사회(Community) 중심의 원리이다. 박물관 교육은 박물관이 포함되는 어떤 지역 환경공간이 있고, 또 박물관이 늘

16) 이난영, 앞의 책, 23쪽.

작용을 미치는 지역범위가 예상되는 것이다.

셋째는 통합(Integrating)의 원리이다.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을 포함하여 가정교육, 유아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에 이르는 폭넓은 범위에 걸쳐 이것을 통합하는 기능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학습하는 법을 학습하는, 요컨대 스스로 성장하는 법을 학습한다고 하는 원리에 기초한다. 박물관은 이 같은 평생학습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인 것이다.¹⁷⁾

박물관이 말하는 교육의 대상은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교육과 유치원(Preschool), 그리고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박물관의 교육 대상은 그 성원이나 계층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연령, 지역 차, 교양 및 다양한 흥미와 관심으로 인하여 각기 서로 다른 것이 특색이며, 또 내면의 문제가 대중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 전달되는가에 문제점이 있다. 각 박물관의 특수성이나 전시 내용 및 그에 대한 연구의 성과 등이 대상자의 수용 태도에 따라 자유롭게 전달되며, 그 결과는 당장 그 자리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¹⁸⁾

박물관에 의한 교육적 배려라 함은 학교교육과 다른 점으로 우선 커리큘럼이 없는 것과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흥미 혹은 관심에서부터 유도하여 지식과 정확한 가치의 전달로 발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이란 의미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하나에 귀결되겠지만 특히 강제성이 없는 박물관의 교육활동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¹⁹⁾

17) 倉田公裕·矢島國雄, 『新編博物館學』, 東京堂出版, 1997, 246~251쪽.(안정애,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1~22쪽 재인용)

18) 이난영, 앞의 책, 23쪽.

19) 이난영, 앞의 책, 24쪽.

2) 박물관 교육의 방법

박물관의 교육 방법은 개인학습을 기본으로 하는 전시활동과 집단학습의 형태를 취하는 전시해설·전시실 토론에서부터 각종의 강좌나 강연회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박물관 교육은 크게 전시를 통한 교육과 전시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역할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효과적으로 되살리고, 대중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정보·해설을 제공하는 것이다.²⁰⁾

(1) 전시(Exhibition)

박물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이다. 우리가 흔히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경우에 전시 이외의 것만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전시는 박물관 교육이 다른 기관의 교육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색이고 박물관 교육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란 학예연구원이 많은 자료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여 제시된 유물자료를 박물관 관람객에게 보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에 기초한 것으로서, 학습자와의 만남·교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교육적으로 배려된 전시야말로 박물관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설전시는 박물관의 주요한 활동으로 이용자에게 지식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상설전시를 다각도로 이해시키고 더 많은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전시의 개최가 필요하게 된다. 나아가 관내 활동으로 머물지 않고 관외 활동으로 이동전시나 순회전시의 형태가 되면 그 교육적 성격은 더욱 뚜렷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중심이 되는 전시 활동으로서는 학교에 대한 순회 전시나 이동전시, 박물관 교육부문에 관리하는 전시실 혹은 체험학습실 등, 어린이나 학생 대상의 전시형태로서 실제로 접촉할 수 있는 각종 자료나 복제품, 모형 등을 이용하여 체험적인

20) 안정애, 앞의 논문, 24~29쪽.

교육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2) 전시 이외의 교육활동

전시 이외의 교육 활동은 그 형태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에 따라 집단학습의 형태, 영상기기·음성기기·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는 형태, 언어(문자) 형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교육 대상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이 준비될 수 있다.

① 집단 학습의 형태

집단 학습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는 전시해설, 전시실 토론, 강좌, 강연회, 워크숍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학교 교육의 수업과 비슷한 원리로서 수강자에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다.

첫째, 전시해설(Guide Tour)은 전시품의 소개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다. 해설자로는 학예연구원이 담당하는 경우와 전시해설자(Docent)를 따로 두는 경우가 있다. 전시해설은 자칫 설명이 유형적인 것으로 될 경향이 없지 않지만,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사람 대 사람의 접촉이라는 따스함이 있으며 더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둘째, 전시실 토론(Gallery Talk)은 전시품이나 특별기획전의 어떤 부분, 혹은 특정의 주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해설하는 것이다. 담당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요원이 맡게 되며 소연구 발표의 형식을 띤다. 참가자들은 지정된 자료(작품)나 전시 앞에 모여 앉거나 서 있는 형태를 취하면서, 대략 45분~1시간 정도의 발표와 15~30분 정도의 질문 및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시실 토론은 원칙적으로 일회로써 완결되는 형식으로 실시되는데, 구미의 박물관들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강연(Lecture)이 있다. 박물관들은 특별전의 개최에 즈음하여 그에 관한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

하는데 그것은 특별전에 대한 상승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넷째, 강연회와 비슷하지만 1회로 끝나지 않고 특정한 주제에 대한 연속적인 강의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강좌(Course Of Lecture)이다. 흔히 강연회에 비하여 정원을 한정하게 되며 따라서 규모가 작은 것이 보통이다.

다섯째, 실험·실습·제작 등 실기에 대한 강습을 주 내용으로 하는 워크샵(Work Shop)이 있다. 이것은 주로 미술관에서의 소묘, 회화, 디자인 교실 등을 비롯하여 최근 박물관에서 관심이 일어나고 있는 체험학습실이 있는데, 주로 역사박물관에서 많이 행해지는 토기 만들기, 한지 공예에서부터 구석기시대의 생활 체험하기 등 다양한 체험학습이 있다.

여섯째, 박물관 밖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견학회·관찰회·채집회 활동이 있다. 견학회는 역사박물관에서의 문화유산 답사 등이 대표적이고, 관찰회는 식물의 분포나 야생조류의 생태 등 자연사 계통의 박물관에서 이루어진다. 채집회는 자연사계 박물관에서 화석이나 조개류·곤충 등의 채집, 인문계에서는 민속자료의 수집 등을 들 수 있다.

② 영상기기·음성기기·정보처리기기의 이용

전시 이외의 교육활동으로는 최근에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기를 이용한 전시 안내활동이 있다. 기기를 이용한 해설에는 먼저 음성기기를 이용한 오디오 안내가 있는데, 언제 어느 때나 박물관에 온다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편리하지만, 일방적으로 듣기만 할 뿐 의문이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 소극성을 낳는다는 지적도 있다. 오늘날에는 오디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영상기기를 이용한 안내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VTR의 활용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많은 경우 영상자료실이 따로 설치된다. 또 정보처리기기의 도입도 추진되고 있으며, 아직 우리에게는 그다지 보편화되지 않은 퀴즈나 Q & A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것들은 학습실이나 참고자료 코너 등 전시실과 분리된 장소에 주로 설치된다.

③ 언어(문자)형태

전시를 통한 교육활동을 돕는 또 다른 형태로서 언어(문자) 형태에 의한 출판활동이 자리한다. 이용자에 대한 1차적 서비스라 할 수 있는 팜플렛·전시해설서·박물관 신문·강좌 교재·그림엽서 등을 비롯하여, 박물관 시설이나 활동에 대한 요람·연보·자료 목록, 조사연구 활동의 성과를 보이는 도록, 그리고 연구와 교육활동의 성과를 종합한 일반 독자 대상의 박물관 총서 등의 형태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출판활동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연구 활동의 일환이거나 홍보활동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한다.

④ 교육 대상에 따른 분류

흔히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대상에 따라 구별하여 실시된다. 박물관은 어린이, 학생, 성인, 주부,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전시나 그에 따르는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물관 교육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 교육과의 연계 프로그램이다.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초·중학교의 수업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 이 경우는 학교의 커리큘럼과 관련하여 학교와 박물관 양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워크시트나 학습 노트를 만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학생 개개인이 흥미 있는 자료를 선택하고 스스로의 학습을 진행하도록 지원을 하는 형태, 즉 학교의 커리큘럼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된다.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많은 자료를 직접 관찰·조사할 필요가 있는 학과목을 박물관과 협력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예연구원이 강사로 활약하기도 한다. 또 박물관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교사를 위한 활동으로서, 교사를 위한 상담 센터(Teacher's Center)가 그것이다. 교사들은 이 상담 센터에서 박물관 교육담당자와 함께 박물관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계획을 세우고 어린이나 학생들이 사용할 학습용 워크시트 등을 제작한다. 그밖에 자원봉사자 제도(Volunteer System)가 있다면 자원봉사자를 양

성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미국 등지의 박물관에서는 전시실 안내가 자원 봉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원봉사 제도의 본질은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박물관 활동에 참가시키고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교육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 실태 분석

우리나라 박물관 교육의 효시는 1947년 10월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에서 시작한 ‘경주어린이 박물관 학교’이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60년대에 처음 강좌가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박물관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77년 ‘박물관대학’이라는 6개월 과정의 박물관강좌 개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강좌는 국립박물관을 비롯한 유사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회교육으로서의 박물관 강좌와는 그 성격이 달랐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성인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실시는 1977년부터 시작되었고, 수강대상과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사회교육 활동으로 성장시킨 것은 1987년 이후라 할 수 있다.²¹⁾ 그리고 제주지역 박물관에서의 본격적인 사회교육 프로그램 실시는 1990년 8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박물관 어린이교실’이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실태 조사는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하여 앞으로 제주지역 박물관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주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박물관의 일반 현황을 살펴 본 다음, 교육 프로그램을 비교적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는 4개 박물관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겠다.

1. 제주지역 박물관의 일반 현황

박물관의 종류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설립·운영자를 중심으로 나누는 방법과 전시자료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먼저 설립·운영자에 따라 국립·공립·사립·대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시자료의 내용으로는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나눌 수 있다.

21) 이태호, 『21세기 박물관 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체육부, 1997, 129쪽.

제주지역에는 13개의 등록박물관(2005. 5월 현재)²²⁾이 있다. 이를 설립·운영자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국립박물관은 <국립제주박물관>이며, 공립박물관으로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감귤박물관>이 있다. 사립박물관은 <제주민속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 <중문민속박물관>, <곰인형박물관>, <제주신영영화박물관>, <설록차 뮤지엄 오'설록>, <평화박물관>, <아프리카박물관>이 있으며, 대학박물관은 <제주대학교박물관>이 있다. 여기에서는 13개 등록박물관 중 조사된 10개 박물관을 전시자료의 내용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나누어서 그 일반현황(2005. 2월 현재)을 살펴 볼 것이다.²³⁾

1) 종합박물관

(1)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은 2001년 6월 15일 제주시 건입동 261번지에 설립된 고고·역사박물관이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지 55,579m²에 연건평 9,287m²의 건물로 소장유물도 7,000여점에 이른다. 전시실은 6개의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2,130m² 면적에 약 1,400여 점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직원 수는 정규직 22명 중 학예직이 6명이다. 제주국제공항에 '작은 박물관'을 개설하여 도·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²⁴⁾ 그 일반현황은 <표 3>과 같다.

22) 제주도청, 『2004 문화스포츠 현황』, 2005, 18~19쪽.

23) <표3>~<표12>의 내용은 연구자가 2005년 2월~3월 중 각 박물관 담당자와의 면담 후 재구성하였음.

24) 국립제주박물관(<http://jeju.museum.go.kr>), 2005. 4. 7.

<표 3> 국립제주박물관 일반현황

| | | | |
|----------------------|---|----|--|
| 박물관명 | 국립제주박물관 | | |
| 연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 12. 30. 국립제주박물관 착공 · 2000. 12. 28. 국립제주박물관 준공 · 2001. 6. 15. 국립제주박물관 개관 | | |
| 소재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261 (http://jeju.museum.go.kr) | | |
| 설립목적 |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전시, 학술조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공연을 통해 제주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센터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 | | |
| 전시시설 현황 및 전시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고고실 - 탐라Ⅰ실 - 탐라Ⅱ실 - 탐라Ⅲ실 - 조선시대실 - 기증유물실 · 기획전시실 · 제주국제공항 작은 박물관 | 면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55,570㎡ · 연면적 : 9,287㎡ · 전시실 면적 : 2,130㎡ · 야외전시 조경 : 29,903㎡ |
| 자료 보유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00여 점 (전시유물 : 제주의 고고·역사유물 1,400여점) | | |
| 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직 : 16명 · 학예직 : 6명 계 : 22명 | | |
| 기타 | <사회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아카데미 · 박물관 교사강좌 · 박물관 문화강좌 · 박물관 전시실 강좌 · 박물관 자원봉사자 강좌 · 박물관 전시실 안내 · 특별전 관련 학술강연 | | |

(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1984년 5월 24일 제주시 일도2동 996-1번지에 설립된 전국 유일의 민속과 자연사가 합쳐진 박물관이다. 제주의 고고·민속·자연사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있으며, 제주의 습지분포와 지질, 고생물 분야의 자료를 조사·연구한다. 부지 31,515㎡에 연건평 5,947㎡의 건물로 소장유물도 33,37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실은 로비, 자연사전시실, 민속전시실, 특별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전시실 면적은 2,130㎡로 약 3,700여점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향토종합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직원 수는 일반직 18명, 학예직 8명이다. 조사·연구사업의 지표조사, 현지방문조사, 직접 채집조사의 결과를 기록화한 학술조사보고서 발간 등 폭넓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과 함께 박물관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교육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색사업으로는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이 있다.²⁵⁾ 그 일반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일반현황

| 박물관명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
| 연혁 | · 1978. 12. 18. 착공 · 1984. 5. 2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개관 · 1992. 11. 23. 박물관 등록(문화관광부 제14호) |
| 소재지 | ·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996-1 (http://museum.jeju.go.kr) |
| 설립목적 | · 제주의 고고·민속·자연사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 제주의 습지 분포 조사연구 · 지질, 고생물 분야의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

25)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개관20년사』, 2004, 24~25쪽.

| 박물관명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 |
|----------------------|---|----|---|
| 전시시설 현황 및 전시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비 : 제주 해양생물생태관 · 자연사 전시실 : 동·식물, 광물 · 제1민속전시실 : 제주인의 일생, 가옥 · 제2민속전시실 : 농경, 어로, 목축 등 생업 · 특별전시실 : 소장자료 전시 · 중앙정원 : 암석 및 석물전시실 · 야외전시 : 할망당, 돛통시 재현 | 면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31,515㎡ · 연 면 적 : 5,947㎡ · 전시실 면적 : 2,396㎡ |
| 자 료 보유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고민속자료 : 8,928점 · 자연사자료 : 25,048점 · 도서류 : 3,531점 <li style="padding-left: 20px;">계 : 37,507점 | | |
| 현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직 : 18명 · 학예직 : 8명 <li style="padding-left: 20px;">계 : 26명 | | |
| 기 타 | <p><사회교육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 박물관 환경교실 · 박물관 어린이 교실 · 설·추석 민속행사 · 갈옷 물들이기 | | |

(3)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은 1967년 3월 20일에 제주대학교민속박물관으로 설치되었고, 1986년 8월 1일에 박물관으로 개칭되었다. 제주시 아라1동 1번지에 설립된 대학박물관으로서 국내·외의 고고, 미술, 역사, 민속 등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관계연구원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의 연구에 공헌하고 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와 유적발굴조사를 활발히 전개하여 전통문화계승에 기여하고 있다. 직원 수는 학예직 1명, 일반직 2명이다.²⁶⁾ 제주도 내왓당 무신

26)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박물관 규정 제1장, 2004. 3. 1(개정).

도27)가 국가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그 일반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제주대학교박물관 일반현황

| | | | |
|----------------------|---|----|---|
| 박물관명 | 제주대학교박물관 | | |
| 연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7. 3. 20. 민속박물관 설치 · 1986. 8. 1. 민속박물관에서 박물관으로 개편 · 2001. 7. 28. 박물관 등록(문화관광부 제217호) | | |
| 소재지 | ·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 | |
| 설립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고고·미술·역사·민속·인류학 분야의 자료 수집, 전시, 보존 · 유물·유적·풍속 등의 조사연구 ·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 | | |
| 전시시설 현황 및 전시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실 · 역사실 · 민속실 · 특별전시실 · 야외전시 | 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928㎡ · 연 면 적 : 477㎡ · 전시실면적 : 116㎡ · 야외전시장 : 1,451㎡ |
| 자료 보유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도류 1,707점, 금속류 581점, 옥서류 224점, 목죽류 823점, 서화류 798점, 직물류 688점, 기타 327점 계 5,148점 | | |
| 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예직 : 1명 · 일반직 : 2명 계 : 3명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유물(발굴 유물) : 5,200점 (1,270점은 국립제주박물관으로 이관) | | |

27)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는 2001년 11월 30일, 국가중요민속자료 제240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 전문박물관

(1)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은 1995년 4월 29일 제주시 이도2동 539-14번지에 설립된 도내 유일의 교육 분야 전문박물관이다. 교육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전시를 통하여 제주교육의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제주교육의 미래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지면적 5,809㎡에 연건평 3,017㎡의 건물로 소장 자료의 수는 22,562점이다. 전시실은 3개의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특별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실 면적은 1,033㎡로 약 1,400여 점의 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직원 수는 학예직 3명, 교육전문직 1명, 행정직 9명이다. 개관 이래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활발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각급학교의 향토학습의 지원으로 교과 관련 향토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주의 문화를 보급시키고 있다.²⁸⁾ 그 일반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제주교육박물관 일반현황

| 박물관명 | 제주교육박물관 |
|------|---|
| 연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 5. 16. 박물관 설치 승인(교육부) · 1995. 4. 29. 제주교육박물관 개관 · 1995. 9. 13. 박물관 등록(문화관광부 제75호) |
| 소재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539-14 (http://www.jjemuseum.go.kr) |
| 설립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 제주교육의 변천과정 정리 · 제주교육의 미래를 제시 |

28) 제주교육박물관에서 발행된 『2003 제주교육박물관 업무편람』, 『2004 제주교육박물관 운영계획』 참조.

| 박물관명 | 제주교육박물관 | | |
|----------------------|--|----|---|
| 전시시설 현황 및 전시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전시실 : 제주교육의 뿌리 · 제2전시실 : 제주교육의 자람 · 제3전시실 : 제주교육의 열 · 기획전시실 : 연1회 주제별로 전시 · 특별전시실 : 기증자료 특별전 · 야외전시장 : 제주 선인의 숨결 | 면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5,809m² · 연 면 적 : 3,017m² · 전시실면적 : 1,033m² · 야외전시장 : 1,089m² |
| 자 료 보유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적류 : 10,418점 · 교수학습자료 : 2,743점 · 문서류 : 2,746점 · 시청각자료 : 1,843점 · 민속자료 : 4,446점 · 역사자료 : 366점 계 : 22,562점 | | |
| 현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 예 직 : 3명 · 교육전문직 : 1명 · 일 반 직 : 9명 계 : 13명 | | |
| 기 타 | <p><사회교육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을 위한 향토문화학교 - 어린이 천자문 서당 - 중·고등학생을 위한 주말문화학교 - 명화감상실 ·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강좌 -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 - 서체 연구교실 - 교양 한문서당 - 낙도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학습 | | |

(2) 제주민속촌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은 1987년 2월 20일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40-1번지에 설립된 야외박물관이다. 제주도의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을 발굴하여 전시함으로써 다른 지방 문화와 차별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만여 평의 대지에 19세기의 제주도를 한 눈에 바라다 볼 수 있는 산촌, 중산간촌, 무속신앙촌 등 전통취락단지이다. 또한 민속놀이 공연장과 민요, 전설, 방언 등 대표적인 무형문화의 집들이 재현되고 있다. 4,024㎡의 면적에 96동의 전시가옥이 있으며, 직원 수는 학예직 1명, 일반직 37명이다. 감물 들이기, 민속음식 시연, 물허벅 지기 등 상설 체험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다.²⁹⁾ 그 일반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제주민속촌박물관 일반현황

| | | | |
|----------------|--|----|---|
| 박물관명 | 제주민속촌박물관 | | |
| 연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 2. 20. 개관 · 2001. 4. 13. 박물관 등록(문화관광부 제204호) | | |
| 소재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40-1 (http://www.jejufolk.co.kr) | | |
| 설립목적 | 제주도의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전·전승·발전시킴으로써 다른 지방 문화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함. | | |
| 전시시설 현황 및 전시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 산촌, 중산간촌, 어촌을 비롯하여 무속신앙촌, 무형문화의 집, 장터 등의 생활 모습 및 전통민속공예장인들이 옛 솜씨를 재현하고 있는 공예방 등 야외 전시공간이 전부 야외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면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57,000㎡ · 연 면 적 : 4,024㎡ · 전시동수 : 96동 |

29) 제주민속촌박물관(<http://www.jejufolk.co.kr>), 2005. 4. 7.

| 박물관명 | 제주민속촌박물관 | | |
|----------------------|--|--|---|
| 전시시설 현황 및 전시구성 | · 제주도의 산촌, 중산간촌, 어촌을 비롯하여 무속신앙촌, 무형문화의 집, 장터 등의 생활 모습 및 전통민속공예장인들이 옛 솜씨를 재현하고 있는 공예방 등 야외 전시공간이 전부 야외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면적 | · 대지면적 : 157,000㎡ · 연 면 적 : 4,024㎡ · 전시동수 : 96동 |
| 자 료 보유현황 | · 토기류 : 3,089점 · 목기류 : 1,448점 · 유기류 : 501점 · 피 력 : 24점 · 초 류 : 249점 계 : 8,187점 | · 철기류 : 843점 · 죽기류 : 327점 · 지 류 : 176점 · 섬 유 : 375점 · 기 타 : 1,155점 | |
| 현 원 | · 학예직 : 1명 · 일반직 : 37명 계 : 38명 | | |
| 기 타 | <제주민속촌박물관 행사 및 이벤트> · 제주민속촌 풍물패 공연 · 감물 들이기 · 봉숭아 물 들이기 · 설·추석 민속행사 · 민속음식 시연 및 시연행사 | | |

(3) 제주민속박물관

<제주민속박물관>은 1964년 6월 22일 한국 최초의 사립민속박물관으로서 조상의 얼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하여 개관하였다. 현재는 제주시 삼양3동 250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000여 평의 부지에 200여 평의 건물로 소장유물도 3,000여 점이 된다. 3개의 전시실을 주제별로 나누어 민구류 등 약 1,500여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야외전시장에는 각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던 143위의 당신(堂神)을 진좌시킨 무신궁(巫神宮)이 있다. 매년 개관일을 맞추어 ‘제주 무신궁 큰굿’이 열린다.³⁰⁾ 그 일반현황은 <표 8>과 같다.

30) 제주민속박물관, 『유물의 향기』, 2005.

<표 8> 제주민속박물관 일반현황

| | | | |
|----------------------|---|----|--|
| 박물관명 | 제주민속박물관 | | |
| 연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4. 6. 22. 개관 · 1964. 9. 30. 박물관 등록(문화관광부 제8호) | | |
| 소재지 | · 제주도 제주시 삼양3동 2505 | | |
| 설립목적 | 우리 조상의 숨결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하여 설립 | | |
| 전시시설 현황 및 전시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전시실 : 자연발생적으로 보이는 유물 · 제2전시실 : 토속적 특성이 있다고 보이는 유물 · 제3전시실 : 해외(한반도·몽고 등) 영향의 색채가 엿보이는 유물 · 야외전시 : 제주 무신궁 | 면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1,000평 · 연면적(전시실포함) : 200평 |
| 자료 보유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생활용구 · 생업생활용구 · 신앙생활용구 · 관혼상제용구 · 유희용구 · 기타 민속유물 계 : 3,000여점 | | |
| 현원 | · 관장 : 1명 | | |
| 기타 | <p><평생교육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들의 안녕을 위한 굿 행사 | | |

(4) 제주신영영화박물관

<제주신영영화박물관>은 1999년 6월 5일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2381번지에 설립된 국내 초유의 영화박물관이다. 영화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한국영화와 세계영화의 변천사를 소개하고 한국영화의 미래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만여 평의 대지 위에 1,000여 평 규모의 전시실과 체험관을 갖추고 있으며, 영화관련 각종 소품과 기자재 그리고 100년의 영화 발자취를

소재로 한 영상테마코너 등을 갖추고 있는 영상문화의 현장이다.³¹⁾ 그 일반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제주신영영화박물관 일반현황

| | | | |
|----------------------|--|----|---|
| 박물관명 | 제주신영영화박물관 | | |
| 연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4. 6. 박물관 등록(문화관광부 제117호) · 1999. 6. 5. 제주신영영화박물관 개관 | | |
| 소재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2381 (http://jejuscm.co.kr) | | |
| 설립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 · 한국영화·세계영화 변천사 정리 · 한국영화의 미래지향적 이미지 제시 | | |
| 전시시설 현황 및 전시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실 : 영화의 역사, 특수효과 촬영, 영상제작기 · 소품·세트장 : 영화의 소품, 스타 애장품 · 체험관 : 멀티사운드 체험관, 애니메이션 촬영체험 · 지하 전시실 : 한국 궁중의상, 3D입체 영상관 · 야외전시장 : 영화 테마의 조형물 | 면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30,000여 평 · 연면적(전시실 포함) : 1,000여평 |
| 자료 보유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시나리오 : 150여 점 · 영화 필름 : 300여 점 · 촬영기 등 기자재 : 100여 점 · 포스터 : 500여 점 계 : 1,050점 | | |
| 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직 : 26명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8월 관광객을 위한 영화박물관 야간 개장 실시 | | |

31) 제주신영영화박물관(<http://jejuscm.co.kr>), 2005. 4. 9.

(5) 설록차뮤지엄 오'설록

<설록차 뮤지엄 오'설록>은 2001년 9월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1235번지에 설립된 차의 역사와 체험을 위한 교육장소이다. 한국 차문화의 변천사, 차의 전과 경로와 세계의 다원, 차의 제조과정, 차의 활용 등이 전시되고 있으며, 160,000여 평의 차밭에서 직접 차를 재배하고 있다. 직원은 학예직 1명, 전문직 2명, 일반직 6명이다.³²⁾ 그 일반현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설록차 뮤지엄 오'설록 일반현황

| | | | |
|----------------------|--|----|---|
| 박물관명 | 설록차 뮤지엄 오'설록 | | |
| 연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 9. 1. 개관 · 2001. 12. 28. 박물관 등록(문화관광부 제231호) | | |
| 소재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1235-4 (http://www.sulloc.co.kr) | | |
| 설립목적 | 한국의 차 문화를 홍보하고 차의 역사 및 체험을 위한 교육장소 | | |
| 전시시설 현황 및 전시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전시관/잔 갤러리 · 특별전시관/차 문화실 | 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5,000평 · 연면적(전시실 포함) : 500평 |
| 자료 보유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와 관련 도자기 및 토기류 : 150점 | | |
| 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예직 : 1명 · 전문직 : 2명 · 일반직 : 6명 계 : 9명 | | |
| 기타 | <p><교육 프로그램 및 이벤트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차음식 페스티벌 · 오 설록과 함께 하는 다례교실 | | |

32) 설록차 뮤지엄 오'설록(<http://www.sulloc.co.kr>), 2005. 4. 9.

(6) 평화박물관

<평화박물관>은 2004년 5월 12일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 평화마을 1166번지에 일제의 침략전쟁을 고발하기 위한 평화의 산 교육장으로 설립되었다. 가마오름에 있는 일본군 주둔 땅굴진지를 관람객들에게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과거의 역사를 바로 배우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교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2,000여 평의 부지에 2km의 일본군 땅굴진지, 그리고 100여 평의 전시실에는 전쟁당시 사용하였던 군복 및 기마부대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으며, 직원은 준학예직 1명, 일반직 5명이 있다.³³⁾ 그 일반현황은 <표 11>과 같다.

<표 11> 평화박물관 일반현황

| | | | |
|----------------------|---|----|---|
| 박물관명 | 평화박물관 | | |
| 연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2. 29. 평화박물관 개관 · 2004. 5. 12. 박물관 등록(제주도 제2004-1호) | | |
| 소재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 평화마을 1166 (http://gamaorum.co.kr) | | |
| 설립목적 | 역사의 현장을 후손들에게 알려 과거의 역사를 바로 배우고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의 포성이 울리지 않기를 바라는 평화의 산교육장 역할 | | |
| 전시시설 현황 및 전시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전시실 : 군복 및 가방 등 · 제1전시실 : 토지측량기, 기마부대 유물 등 · 제3전시실 : 토목공사 때 사용했던 유물 · 제4전시실 : 당시 교육자료 · 특별전시 : 태평양전쟁 참상기록 사진전 · 가마오름 일본군 땅굴진지 :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제1땅굴진지 | 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12,000평 · 일본군 땅굴진지 길이 : 2km(개방 길이 : 300m) · 전시실면적 : 100평 |

33) 평화박물관(<http://gamaorum>), 2005. 4. 9.

| 박물관명 | 평화박물관 |
|------------|--|
| 자료 보유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치, 대정 80년 회고 사진첩 · 세계 사진정보 · 주보, 통보 · 당시 교육자료, 교과서, 교통노선도 등 <p style="text-align: center;">계 : 300여점</p> |
| 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학예직 : 1명 · 일반직 : 5명 <p style="text-align: center;">계 : 6명</p> |

(7) 아프리카박물관

<아프리카박물관>은 2005년 1월 20일 서귀포시 대포동 1833번지에 개관하였다. 아프리카의 미술품을 수집·보존·전시하는 아시아 최초의 박물관으로서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없애고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장 역할을 하고 있다. 소장품 650점 가운데 300여 점의 작품을 상설전시관에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아프리카의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고 있다. 직원은 임원직 9명, 학예연구원 1명, 일반직 9명 등이다.³⁴⁾ 그 일반현황은 <표 12>와 같다.

<표 12> 아프리카박물관 일반현황

| 박물관명 | 아프리카박물관 |
|------|--|
| 연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11. 16. 혜화동 대학로에 아프리카박물관 개관 · 2005. 1. 20. 아프리카박물관 개관 · 2005. 5. 6. 박물관 등록(제주도 제2005-3호) |
| 소재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 1833 <p style="text-align: center;">(http://africamuseum.or.kr)</p> |

34) 아프리카박물관(<http://africamuseum.or.kr>), 2005. 4. 9.

| | | | |
|----------------------|---|----|---|
| 박물관명 | 아프리카박물관 | | |
| 설립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최초의 박물관으로서 아프리카의 미술품을 수집·보존·전시 · 아프리카 문화와 예술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 아프리카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 제공 ·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장 역할 | | |
| 전시시설 현황 및 전시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전시실 : 아프리카 사진 상설 전시관 · 제2전시실 : 드로잉전시관, 어린이 아프리카 문화체험 교실 · 제3·4전시실 : 아프리카 조각미술품 및 가면전시관, 전통가옥 및 부족 재현 · 야외전시/원형야외공연장/아프리카 민속공연단 전통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짐바브웨 쇼나조각전시장 - 동물 소공원 | 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8,600m² · 연면적(전시실 포함) : 3,960m² |
| 자료 보유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30여개국의 70여 부족 작품 약 650점 소장 (17세기말부터 20세기초 작품) | | |
| 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직 : 9명 · 학예연구원 : 1명 · 일반직 : 9명 · 기타 : 4명 계 : 23명 | | |
| 기타 | <p><특색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세네갈 민속공연단 초청 공연 · 아프리카 짐바브웨 쇼나조각전시장 <p><어린이 교육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아프리카 문화체험 학습 프로그램 · 동영상실 | | |

2.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본 장에서는 제주도내의 13개 등록박물관 중 교육적 기능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 4개의 박물관을 중심으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운영되어 온 주요 교육 프로그램을 전시를 통한 교육³⁵⁾과 전시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³⁶⁾으로 나누어서 그 현황을 살펴보겠다.

1) 전시를 통한 교육

(1)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상설전시 할 뿐 아니라, 기획전시와 특별전시를 통해 다양한 주제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사고고실, 탐라Ⅰ실, 탐라Ⅱ실, 탐라Ⅲ실, 조선시대실, 기증유물실의 6개 상설 전시관을 통해 제주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시대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리고 석상, 정주석, 연자방아 등 제주의 현 무압으로 만든 조형물과 민속품을 박물관 야외에 전시하여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손으로 만져보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교육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양동 선사 가옥, 불탑사 5층석탑, 덕관배 등을 복원 전시하고 있다. <국립제주박물관>의 전시 내용은 <표 13>과 같다.

35) <표13>~<표16>의 내용은 연구자가 2005년 2월~3월 중 각 박물관 담당자와의 면담 후 정리하였음.

36) <표17>~<표23>의 내용은 연구자가 2005년 2월~3월 중 각 박물관 담당자와의 면담 후 정리하였음.

<표 13> 국립제주박물관 전시 내용

| 박물관명 | 국립제주박물관 | | | | | |
|---------------|--|----------------------------------|---|----------------|---|-----------------------------|
| 상설전시 | 선사고고실 | 탐라Ⅰ실 | 탐라Ⅱ실 | 탐라Ⅲ실 | 조선시대실 | 기증유물실 |
| | 제주의 자연환경과 구석기 시대부터 기원전·후에 이르는 선사문화 전시 | 기원전·후부터 삼국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탐라 전기문화 전시 | 탐라문화의 전개와 발전을 보여주는 탐라 중기문화와 고려시대, 탐라(제주) 관련 자료 전시 | 옛 지도 탐라의 모습 전시 | 조선시대 제주도 통치자료, 유배자료, 제주 사람들의 생활자료, 표류와 표착에 대한 자료 전시 | 개관 이래 기증된 수천여점의 일부를 선별하여 전시 |
| 제주국제공항 작은 박물관 | 시대별, 분야별로 엄선한 국보급 유물 50여 점을 복제하여 전시 | | | | | |
| 기획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 책과 글씨의 향기 - 사찰 꽃살문 사진 특별전 - 항해와 표류의 역사 · 2004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방에 온 젊은 선원 하멜의 꿈 -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 - 제주 복식전 - 19세기 말 제주의 계엄사령관 | | | | | |
| 야외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자석, 정주석, 연자방아 등 제주의 현무암으로 만든 조형물과 민속품을 만날 수 있음. · 삼양동 선사 가옥, 불탑사 5층석탑, 덕관배 복원 전시 | | | | | |

① 기획전시

상설전시와는 별도로 기획전시를 통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특색 있는 주제들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에는 「사찰 꽃살문

사진 특별전』, 2004년에는 「동방에 온 젊은 선원 하멜의 꿈」,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 「제주 복식전」, 「19세기말 제주의 계엄사령관」이라는 주제로 전시하였다.

② 체험학습 코너 운영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상설 전통체험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오륜행실도, 김홍도 풍속화, 김정희의 세한도 목판 찍기 코너와 목판아지 출토 기와와 수정사지 출토 유물 탁본 코너, 관덕정과 불탑사 5층 석탑 조립하기 코너 등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③ 박물관 전시실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박물관 전시실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박물관 현장학습 프로그램과 청소년 역사캠프를 들 수 있다. 박물관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박물관에서 하는 일을 소개하는 내용과 국립제주박물관을 소개 하는 내용을 각각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박물관의 전반적인 내용과 전시자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전시실별로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역사캠프는 전시실 관람 후 전시실 유물과 관련된 유적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으로 북촌리 바위그늘, 삼양동 유적, 원당사지 등과 기타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 2004년부터 실시된 갤러리 토크(Gallery Talk)는 큐레이터와 각계 인사를 초청하여 대다수의 관람객들이 평소 어렵게 느껴왔던 전시 유물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게 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④ 관외 전시

국립제주박물관의 전시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제주국제공항 작은 박물관'을 들 수 있다. 시대별·분야별로 엄선한 국보급 유물 50여 점을 복제하여 전시하고 있다.

(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도를 대표할 만한 종합박물관으로서 제주의 고고·민속·자연사 자료를 다양하게 전시하고 있다. 로비에 있는 해양생물생태관은 1999년에 신설된 전시관으로 제주도 무인도의 하나인 문섬 주변 생태계의 모습을 다양한 서식생물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연출하였다. 자연사전시실은 제주도 형성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디오라마를 비롯하여 지질암석, 식물, 동물들의 흔적과 실물들을 시대별, 장르별, 테마별로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이나 일반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 2민속전시실은 제주인의 통과의례를 비롯하여 삶의 모습들을 입체적으로 전시함으로써 독특한 문화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박물관 광장과 중앙 정원 등에 각종 암석, 석물 등이 전시되어 야외에서도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느낄 수 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전시 내용은 <표 14>와 같다.

<표 1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 내용

| 박물관명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 | |
|------|--|---|--|---|
| 상설전시 | 해양생물생태관 | 자연사전시실 | 고고민속전시실 | |
| | | | 제1민속전시실 | 제2민속전시실 |
| | 제주도 남쪽 문섬 주변 바닷속 해양생물의 생태모습을 디오라마 기법으로 표현한 전시관으로 고래상어, 돌묵상어, 대왕쥐가오리, 소가오리 등 대형 어류들을 전시 | 화산섬 제주도의 형성과정 및 그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질분야를 비롯하여 육상생태계의 모습 등을 연출하여 전시 | 제주사 연표를 비롯하여 고대 화폐, 고문서 등을 보여주는 향토역사관과 제주인의 통과의례, 세시풍속, 영등굿 모습 등을 재현하고 있는 민속전시관이 있다. | 좁녀, 사냥, 목축 모습을 재현하여 디오라마 형태로 보여주고 있으며, 농경생활 재현 모습과 각종 농기구를 비롯하여 불미 공예와 집줄 농기 모습 등을 전시 |

| 박물관명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
| 특별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양서파충류 - 제주화산이 빚어낸 수석 - 2002 월드컵 1주년 다시 보는 그 날의 함성 - 서양 고지도 속의 제주도 - 아름다운 잠자리 세계 · 2004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름의 향기 - 장백산의 희귀한 자연자원들 - 해병 3·4기생의 다시 보는 그 날의 영광 - 기증자료 명품전 - 압화식물 특별전 |
| 국내·외 이동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바다 비경 사진전 - 북한 사진전 - 제주의 옛 사진 |
| 야외전시 | <p>마을 유지들의 업적을 새긴 기념비들을 한 곳에 세운 비석거리가 있으며 무덤에는 소박한 형태의 망주석, 문인석, 동자석 등을 만들어 세웠다. 야외석물전시장은 연자매와 돛통시 그리고 할망당을 재현하였으며, 광장에는 대형암석과 중앙 정원에는 지역별 암석 등을 전시하고 있다.</p> |

① 특별전시³⁷⁾

1984년 청강기증품 및 산악인 고상돈유품전 『靑江寄贈品 및 山岳人高相敦遺品展』을 시작으로 2004년 『長白山의 희귀한 자연자원들』까지 80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② 체험학습 코너 운영

체험학습 코너는 실내 전시물을 이용한 경우와 실외 전시물을 이용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내 전시의 경우 도내 해변가에 쌓여있는 퇴적물이나 해조류를 현미경을 통해 직접 관찰하게 함으로써 화산섬 제주도의 형성과정 및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광섬유시스템을 이용하

37)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앞의 책, 70~71쪽.

여 연출한 지질 모형은 제주도의 지질도를 포함하여 오름, 하천, 용암동굴 등 주요 지질자원의 분포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야외 전시를 이용한 경우 제주의 재래식 화장실인 돛통시에 흑돼지와 돛도고리 등을 갖추어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③ 박물관 전시실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도내의 관광업에 종사하는 국내·외 가이드를 대상으로 각 전시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박물관 바로 알기와 전시실을 연계하여 제주의 문화유산, 자연생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

④ 이동전시

박물관 사진자료들을 도내·외는 물론 해외에 까지 이동하여 전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제주도를 홍보하고 있다. 2003년에는 ‘제주바다 비경전, 북한 사진전, 제주의 옛사진’ 등을 주제로 이동 전시를 개최하였다.

(3)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 지역의 유·무형의 교육 자료를 발굴하여 보존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열고자 제주교육에 관한 자료들을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특징적으로 전시하고 있다.³⁸⁾ 제1전시실은 고대로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교육 자료들을 실제 유물을 비롯하여 복제·모형·재현하여 전시함으로써 제주교육의 역사를 한 눈에 알게 하였다. 제2전시실은 해방 이후 미군정하의 교육을 거쳐 4·3사건, 6·25의 시련기를 넘어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제3전시실은 제주의 수놓음정신, 제주의 속담과 방언 등 제주의 얼을 나타냄으로써 근면한 면학정신과 제주교육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야외전시장에서는 제주의 주거문화와 생활도구 등 제주인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³⁹⁾ <제주교육박물관>의 전시 내용은 <표 15>와 같다.

38) 이요섭, 『한국의 특수박물관』, 도서출판 세시, 1999, 404쪽.

39) 제주교육박물관(<http://www.jjemuseum.go.kr>), 2005. 4. 9.

<표 15> 제주교육박물관 전시 내용

| 박물관명 | 제주교육박물관 | | |
|-------------|--|---|---|
| | 제1전시실 (제주교육의 뿌리) | 제2전시실 (제주교육의 사람) | 제3전시실 (제주교육의 얼) |
| 상설전시 40) | 고대로부터 탐라·고려·조선을 거쳐 해방 이전까지의 교육내용을 복제·모형·재현 및 실제 유품들을 전시 | 미군정하의 교육을 거쳐 4·3, 6·25의 시련기를 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교육의 현장기록사진, 교실모형, 악기, 교수자료, 교과서, 기록물, 보고서 등을 전시 | 조선시대 제주교학의 선구자, 근대학교 교지, 제주의 수놓음 정신, 아이들의 놀이 디오라마, 제주 속담과 방언, 민요 등 제주의 얼을 되새기게 하는 자료들을 전시 |
| 기증자료 특별전시 | · 2003년도 : 1960년대 이전 교과서 자료전, 1950년대 이전 교과서 자료전, 1940년대 이전 교과서 자료전 · 2004년도 : 부역용품전, 교수학습자료전 | | |
| 기획전시 | · 2003년도 : 기획전(10회) 1950년대 이전 옛 학습 참고서전 · 2004년도 : 기획전(11회) 조선시대 교학 고서전 | | |
| 야외전시 | · 제주의 전통초가(안거리, 밖거리, 마당, 통시, 장독대)를 중심으로 354점의 민속자료 전시 · 제주교학비, 돌하루방, 방사탑, 방사석, 설화인물상, 망주석, 동자석 등 석조물 51점 전시 | | |

① 기획전시

기획전시는 소장자료와 관련 자료들을 조사·연구하여 연 1회 주제별로 전시하고 있다. 2003년에는 1950년대 이전 옛 참고서전을, 2004년에는 조선시대 교학 고서전을 열어 제주 교육의 변천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② 기증자료 특별전시

특별전시실에서는 매년 2회씩 기증 자료를 교체 전시하고 있다. 2003년

40) 강봉수, 『평생학습관으로서 제주교육박물관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교육박물관 평생교육 운영의 실제』, 제주교육박물관, 2002, 14쪽.

에는 시대별로 교과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도록 1940년대 이전 교과서 자료전, 1950년대 이전 교과서 자료전, 1960년대 이전 교과서 자료전을 개최하였다. 2004년에는 부엌용품전, 교수학습 자료전을 개최하여 기증해 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을 기리는 동시에 교육적인 효과도 얻고 있다.

③ 체험학습 코너 운영

체험학습 코너는 먼저 실내 전시를 이용한 경우, 우리나라의 교육현장과 세계 주요 국가의 교육현장을 비교하는 코너와 제주의 사투리와 민요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제주어의 특성과 문화를 바르게 알리는 제주의 언어문화와 민요 체험 코너가 있다. 그리고 체험학습실을 따로 설치하여 제주의 각종 민구류를 이용하여 제주의 전통적인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0~1970년대 교실 모습을 재현하여 옛날의 교육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야외전시장에는 전통식 초가를 재현하여 조상들의 주거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초가 옆에는 텃밭인 우영밭을 만들어 각종 채소류 등을 직접 따서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조들이 사용했던 오락인 고누놀이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④ 박물관 전시실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박물관에서 발간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4) 제주민속촌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은 19세기 제주도 특유의 생활풍속이 살아 있는 현장으로 100여 채의 전통 가옥과 8,000여 점의 민속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제주도의 산촌, 중산간촌, 어촌을 비롯하여 무속신앙촌, 무형문화의 집, 장터 등의 생활 모습 및 전통 민속공예장인들이 옛 솜씨를 재현하고 있는 공예방 등 전

시공간이 전부 야외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품의 대부분이 제주민속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민속촌박물관>의 전시 내용은 <표 16>과 같다.

<표 16> 제주민속촌박물관 전시 내용

| 박물관명 | 제주민속촌박물관 |
|----------------|--|
| 상설전시 (야외전시) | <p>19세기 제주도 특유의 생활풍속이 살아 있는 현장으로 100여 채의 전통 가옥과 8,000여 점의 민속자료를 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촌마을(16동) : 해발 300미터 이상의 준평원 지대에서 농업 및 목축 위주의 생활을 했던 마을 - 중산간촌(38동) : 해발 100~300미터 사이의 평야지대에서 비교적 부유하게 생활했던 마을 - 어촌(10동) : 해발 100미터 이하의 지역에 형성되어 농업을 겸한 어업 위주의 생활을 했던 마을 - 무속신앙촌 : 섬이라는 자연적 한계성, 특수성 등으로 다양했던 민간신앙을 엿볼 수 있는 곳 - 종가집 : 4대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 있는 종가집(전통혼례를 체험할 수 있는 곳) - 제주영문 : 제주목사가 송사를 보면서 행정을 하던 곳 - 공예방 : 전통민속공예장인들이 옛 솜씨를 재현하는 곳 - 먹거리 장터 : 제주도 토속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 - 공연장 : 전통사물놀이와 농악공연 등을 만날 수 있는 곳 - 어구전시관 : 물고기를 잡는 도구, 해녀 도구 등 자료를 전시한 곳 |

① 체험학습 코너 운영

제주민속촌박물관의 전시는 모두 야외 전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시 자료들이 체험학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체험학습은 상설 체험마당과 계절별·세시별 체험 마당으로 구별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상설체험 마당에서는 물허벅 지기, 맷돌 돌리기, 다듬이질, 절구질, 지게 지기 등의 전통생활풍속을 체험할 수 있다. 계절별·세시별 체험마당에서는 설, 추석, 동지에 행해지는 것으로 세시음식 시

연 및 시식과 지게발 걷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널뛰기, 투호놀이 등의 민속놀이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름철 민속행사로 감물 들이기와 봉숭아 물 들이기 체험을 할 수 있다.

2) 전시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

전시이외의 교육 활동은 ①집단학습의 형태, ②영상기기·음성기기·정보처리기기 사용, ③언어(문자)형태, ④교육 대상에 따른 분류 등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각 박물관별로 교육 대상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 보겠다.

(1)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사, 전문가, 자원봉사자, 관람객,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2003년과 2004년에 실시된 프로그램들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국립제주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현황

| 박물관명 | 국립제주박물관 | | | |
|-------|----------------|----------|-------------------------|----|
| 연도별 | 교육 프로그램 | 대 상 | 기 간 | 비고 |
| 2003년 | 박물관 강좌 | 대학원생 | 1.21~1.24 | |
| | 박물관 아카데미 | 문화강좌 수료자 | 3. 7~4.11 | |
| | 박물관 전시실 강좌 | 자원봉사자 | 4.21~6.16 | |
| | 특별전 관련 학술강연 | 일반인 | 8. 8 | |
| | 해외학자 초청강연 | 일반인 | 8.26~9.26 | |
| | 제2회 박물관 문화강좌 | 일반인 | 9.19~12.5 | |
| | 자원봉사자 전시실 안내 | 관람객 | 매주 화~토 (15:00-17:00) | |
| |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 어린이 | 매년 5월 | |
| 2004년 | 박물관 아카데미 | 일반인 | 3.19~4.23 | |
| | 박물관 전시실 강좌 | 자원봉사자 | 5. 3~6.28 | |
| | 박물관 전문강좌 | 자원봉사자 | 7. 5~7. 9 | |
| | 박물관 교사 강좌 | 교 사 | 8. 2~8. 6 | |
| | 박물관 문화강좌 | 일반인 | 8.13~11. 5 | |
| | 특별전 관련 특강 | 일반인 | 9. 26 | |
| | 박물관 자원봉사자 강좌 | 자원봉사자 | 연 중 | |
| | 박물관 전시실 안내 | 관람객 | 매주 화~토 (15:00-17:00) | |
| |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 어린이·청소년 | 분기별 1회 | |
| | 박물관 일일체험 | 어린이·청소년 | 분기별 1회 | |
| |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 어린이 | 매년 5월 | |

① 박물관 강좌

전공자를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공동 주최하는 박물관학에 대한 강좌 프로그램이다.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다른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② 박물관 문화강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로 2003년 ‘한국인의 사상과 예술’, 2004년 ‘조선시대의 중앙과 지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문화 기저에 흐르는 사상과 예술품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자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매회 주제를 바꾸어 다양한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③ 박물관 아카데미

박물관 문화강좌를 이수한 수강자를 대상으로 강의와 토론을 통해 심화 학습시키는 프로그램이다. 2003년 ‘흙과 불의 공예’라는 주제로 선사시대 토기부터 조선시대 자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④ 박물관 교사 강좌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30시간에 걸쳐 한국사와 한국문화 전반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이해의 안목을 높이고자 2004년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관련하여, 박물관 교사 강좌는 많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⑤ 박물관 전시실 강좌

자원봉사자 양성과정으로, 자원봉사 활동 지원자를 대상으로 박물관학 및 전시실 안내, 유물 복원, 보존처리, 도서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⑥ 박물관 전문 강좌

자원봉사 활동 경력 1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 집중 교육시키고 있다.

⑦ 박물관 자원봉사자 강좌

자원봉사 활동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의 자질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⑧ 특별전 관련 특강

일반인과 문화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특별전 관련 내용의 강연을 하고 있다. 2004년에는 ‘찰리사 이규원의 조선 영토 지키기’를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졌다.

⑨ 박물관 전시실 안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실 유물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⑩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도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유물들과 내가 상상하는 박물관의 모습을 그려보는 행사이다.

⑪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2004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도내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직접 찾아가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특강과 전통문화 체험학습의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꾀한 프로그램이다.

⑫ 박물관 일일체험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박물관으로 초청하여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심어주고 나아가 박물관에 대한 친밀감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전시실 탐험, 퀴즈로 재미있게 풀어보는 우리 문화재, 전통문화 체험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위에 소개된 12개의 프로그램을 교육 대상별로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국립제주박물관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 연도별 | 성 인 | | | | | | 학 생 |
|------|---|---------------|-------------------|-------------|---------------|--|--|
| | 일반인 | 문화강좌 수료자 | 관람객 | 전공자 | 교사 | 자원봉사자 | |
| 2003 | · 박물관 문화강좌 · 특별전 관련 학술강연 · 해외학자 초청강연 | · 박물관 아카데미 | · 자원봉사자 전시실 안내 | · 박물관 강좌 | | · 박물관 전시실강좌 | ·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
| 2004 | · 박물관 문화강좌 · 특별전 관련특강 | · 박물관 아카데미 | · 박물관 전시실 안내 | · 박물관 강좌 | · 박물관 교사강좌 | · 박물관 전시실 강좌 · 박물관 전문강좌 · 박물관 자원봉사 자 강좌 | ·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 찾아가 는 박물관 교실 · 박물관 일일체험 |

<국립제주박물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교사, 전문가, 자원봉사자로 세분하여 전문성을 살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는 프로그램과 박물관 관련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양분된다. 이 중에서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박물관 강좌’와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 아카데미’, ‘박물관 전문 강좌’는 박물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와 부응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기대되는 바가 큰 프로그램들이다.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박물관 교사 강좌’는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한 토요일휴업일에 대응할 수 있으면서, 학교교과 과정과 박물관 교육의 연계를 위

해서 우선해야 할 교사 교육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교사가 먼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교육 현장에서 이론과 실재를 연결시킨 박물관을 활용한 수업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의 개발을 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관람객을 적극적으로 박물관으로 끌어들이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양성으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교육과 자질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성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다.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박물관 일일체험’,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성인 뿐 아니라 학생에게까지 그 교육 대상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회적인 성격에 그치는 감이 없지 않다.

(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성인과 학생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전통문화강좌’ 등을 들 수 있으며,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박물관 어린이교실’, ‘박물관 환경교실’ 등이 있다. 그리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설·추석 민속놀이’ 등을 통해 가족 전체가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한마당 축제를 열고 있다. 또한 야외 광장에서는 매년 탐라문화제 민속경연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출연자와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먼저 2003년과 2004년에 실시된 프로그램들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표 19>⁴¹⁾와 같다.

41)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앞의 책, 102~110쪽.

<표 19>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현황

| 박물관명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 | |
|-----------------|--------------------|---------------|-------------|----|
| 연 도 별 | 교육 프로그램 | 대 상 | 기 간 | 비고 |
| 2003년 | · 박물관 환경교실 | | | |
| | ① 박물관 탐방 | 학부모, 어린이 | 1.22 | |
| | ② 동굴유적 및 방어유적 탐방 | " | 2.26 | |
| | ③ 불교유적탐방 | " | 3.27 | |
| | ④ 오름탐방 | " | 8.27 | |
| | ⑤ 곤충채집 및 식물탐사 | " | 8.29 | |
| | ·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 일반인 | 6.12~7.4 | |
| | · 박물관 어린이교실(제14회) | 초등학생 | 7.26~7.30 | |
| | · 갈옷 물들이기 | 일반인 | 8.1~8.5 | |
| · 박물관 자료 그리기 대회 | 도내 고등학생 | 11.15 | | |
| 2004년 | · 설 · 추석 민속행사 | 일반인, 학생 | 1.22~1.23 | |
| | ·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 일반인 | 3.24~5.15 | |
| | · 박물관 환경교실 | | | |
| | ① 문화유적탐방 | 학부모, 어린이 | 8.12 | |
| | ② 역사유적탐방 | " | 8.13 | |
| | ③ 제주 곤충 | 일반인 | 9. 2 | |
| | ④ 제주 식물생태 | " | 10.19 | |
| | ⑤ 제주과학축전 | " | 10.29~10.31 | |
| | ⑥ 제주의 조류생태 | " | 11.17 | |
| | ⑦ 철새 탐조 | 중등학생 | 11.20 | |
| | ⑧ 철새 탐조 | 중등학생 | 12. 5 | |
| | ⑨ 제주의 곤충자원 | 문화해설사, 일반인 | 12.14 | |
| | ⑩ 압화 시연 | 일반인 | 12.20 | |
| | · 박물관 어린이 교실(제15회) | 제주시내 초등학생 | 7.27~7.30 | |
| · 제주어 바로알기 문화강좌 | 일반인 | 7.7~7.9 | | |

① 박물관 어린이 교실

제주의 민속 문화와 자연생태자원에 대한 강의와 현장학습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제주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자 지난 1990년부터 매년 여름방학을 통해 1주간 10강좌를 개설해 실시하고 있다.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하여 읍·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다.

② 박물관 환경 교실

제주생물자원의 보존과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내의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새탐조, 곤충채집, 화석지 탐방, 오름 탐방, 식물관찰, 해양생물채집, 습지생태관찰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역사문화유적 탐방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③ 전통문화 강좌

성인을 대상으로 제주의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연 1회로 2~3일간 제례, 혼례, 상례, 문화재 등의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④ 설·추석 민속행사

전통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제주를 찾는 방문객과 귀향 재외 도민들에게 민속놀이인 연날리기, 제기차기, 윷놀이, 전통음식 만들기, 지게발 걷기, 햇밤 구워먹기, 토정비결 등 세시풍속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박물관 광장에 마련하고 있다.

⑤ 갈옷 물들이기

제주의 전통의상인 갈옷은 풋감을 이용해 만든 옷으로 제주 고유의 염색방법이다. 이러한 전통문화 유산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매년 여름이면 제작과정을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⑥ 박물관 자료 그리기대회

도내 학생들에게 박물관 자료를 통하여 제주의 전통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또한 제주 문화유산의 이해와 계승에 기여하고자

박물관 자료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⑦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제주를 찾아오는 국내·외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의 문화유산, 문화 관광자원 등을 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여 도내 주요 관광지에 배치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해설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에 소개된 7개의 프로그램을 교육 대상별로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표 20>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 연도별 | 학 생 | | 성 인 | 성인·학생 |
|------|--------------|-------------------|--|--|
| |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 | |
| 2003 | · 박물관 어린이 교실 | · 박물관 자료그리기 대회 | · 문화유산해설사양성교육 · 잘못된 물들이기 | · 박물관 환경교실 ① 박물관탐방 ② 동굴유적및방어 유적탐방 ③ 불교유적탐방 ④ 오름탐방 ⑤ 곤충채집및식물탐사 |
| 2004 | · 박물관 어린이 교실 | · 박물관환경 교실 (철새탐조) | · 문화유산해설사양성교육 · 제주어바로알기문화강좌 · 박물관환경교실 ① 제주곤충 ② 제주식물생태 ③ 제주과학축전 ④ 제주의 조류생태 ⑤ 제주의 곤충자원 ⑥ 압화 시연 | · 설·추석민속행사 · 박물관환경교실 ① 문화유적탐방 ② 역사유적탐방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는 특징을 살려 체험학습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박물관 어린이 교실’과 ‘박물관 환경 교실’은 제주의 민속 문화

와 자연생태자원에 대해 강의와 현장학습을 함께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박물관 환경교실은 제주 생물자원의 보존과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으로서 초·중·고등학생, 학부모까지 그 대상을 넓혀 가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장체험 학습의 내용 또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이외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과정’은 도내 다른 박물관과 차별되는 프로그램이다. 제주도는 국제휴양도시로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제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 정확하게 학습한 해설자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여 도내 주요 관광지에 배치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해설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재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내의 관광업에 종사하는 국내·외 안내원들을 대상으로 박물관 바로 알기와 제주의 문화유산과 자연생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전시실과 연계한 관광 안내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3)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은 교육박물관이라는 특성에 맞게 청소년들에게는 교과관련 향토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전통문화를 체험하거나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몇 가지 프로그램은 정례화 된 교육과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향토문화학교’, ‘주말문화학교’이며,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은 ‘전통문화강좌’,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 등이 그것이다.⁴²⁾ 먼저 2003년과 2004년에 실시된 프로그램들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표 21-1>⁴³⁾과 <표21-2>⁴⁴⁾와 같다.

42) 강봉수, 앞의 논문, 18쪽.

43)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평생교육 운영의 실제』, 2003, 49~53쪽.

44) 제주교육박물관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추진실적(2004년).

<표 21-1> 제주교육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현황

| 박물관명 | 제주교육박물관 | | | |
|--------|-----------------------|----------|---------------------------|----|
| 연 도 별 | 교육 프로그램6 | 대 상 | 기 간 | 비고 |
| 2003년도 | · 전통문화강좌 : 지역문화와 민족문화 | 교사 · 일반인 | 7. 28 ~ 7. 31 | |
| | ·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 | | | |
| | ① 제주의 문화유산 답사 | 학부모 | 5. 9 | |
| | ② 박물관 · 미술관 기행 | " | 5. 23 | |
| | ③ 오름 답사(동부지역) | " | 5. 28 | |
| | ④ 도요지 현장을 찾아서 | " | 6. 13 | |
| | ⑤ 역사 · 민속박물관 기행 | " | 9. 26 | |
| | ⑥ 대정골 유적과 선사체험 | " | 10. 10 | |
| | ⑦ 오름 답사(서부지역) | " | 10. 17 | |
| | ⑧ 마애명(磨崖銘) 답사 | " | 10. 31 | |
| | · 교양 한문서당 | 일반인 | 10. 6 ~ 11. 6 | |
| | · 서체 연구교실 | " | 4.7~7.11 9.28~10.23 | |
| | · 향토문화학교 | | | |
| | ① 연 만들기 | 초등학생 | 5. 1, 10. 2 | |
| | ② 민속놀이 | " | 5. 7, 5. 14, 10. 16 | |
| | ③ 제주 민요 배우기 | " | 5. 21, 6. 3 | |
| | ④ 제주도 설화 | " | 5. 28, 10. 8, 10. 31 | |
| | · 어린이 천자문 서당 | 초등학생 | 1. 2~1. 18 7. 29~8. 14 | |
| | · 주말문화학교 | | | |
| | ① 전통연 만들기 | 중 · 고등학생 | 5. 7, 9. 20, 11. 8 | |
| | ② 토우 만들기 | " | 5. 24, 9. 28 | |
| | ③ 문화유적지 답사 | " | 5. 31, 10. 26 | |
| | ④ 천연염색 | " | 6. 14, 10. 7 | |
| | · 명화감상실 | 학생 · 학부모 | 1. 6~1. 15 8. 5~8. 14 | |
| | · 봉숭아 물들이기 | 학생 · 학부모 | 7. 25~7. 26 | |

<표 21-2> 제주교육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현황

| 박물관명 | 제주교육박물관 | | | |
|--------|-------------------------------|------------|---------------------------------|----|
| 연도별 | 교육 프로그램 | 대 상 | 기 간 | 비고 |
| 2004년도 | · 전통문화강좌 : 선인들의 생활문화 | 교사 · 일반인 | 7. 27~ 7. 30 | |
| | ·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 | | | |
| | ① 오름 답사(동부지역) | 교사 · 학부모 | 4. 23 | |
| | ② 마애명(磨崖銘) 답사 | " | 5. 21 | |
| | ③ 도요지 현장을 찾아서 | " | 5. 28 | |
| | ④ 미술관 기행 | " | 6. 11 | |
| | ⑤ 신당(神堂)기행 | " | 9. 21 | |
| | ⑥ 박물관 기행 | " | 10. 1 | |
| | ⑦ 역사 · 문화기행 | " | 10. 17 | |
| | ⑧ 오름 답사(서부지역) | " | 10. 22 | |
| | ⑨ 대정골 유적과 선사체험 | " | 11. 5 | |
| | · 교양 한문서당 | 일반인 | 10. 4~11 .16 | |
| | · 서각(書刻)교실 | " | 4. 19~6. 25 | |
| | · 향토문화학교 | | | |
| | ① 탈춤 한마당 | 초등학생 | 4. 27, 10. 5 | |
| | ② 가오리연 만들기 | " | 5. 11, 10. 19 | |
| | ③ 제주도 설화 | " | 5. 18, 10. 26 | |
| | ④ 제주 민요 배우기 | " | 5. 25, 10. 19 | |
| | · 어린이 천자문 서당 | 초등학생 | 1. 6~1. 26 8. 2~8. 18 | |
| | · 주말문화학교 | | | |
| | ① 제주 갈천을 이용한 소품만들기 | 중 · 고등학생 | 5. 29, 6. 12, 10. 23, 10. 30 | |
| | ② 방패연 만들기 | " | 6. 5, 6. 19, 10. 10 | |
| | · 낙도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학습 | 청소년 · 지역주민 | 10. 9 | |
| | · 명화감상실 | 학생 · 학부모 | 1. 5~1. 14 8. 2~8. 11 | |

① 전통문화강좌⁴⁵⁾

교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마다 주제를 정하여 관련 강좌와 현장답사를 병행하고 있다. 강좌의 특성은 중앙과 지역의 민족문화와 생활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의 본질과 제주 문화의 정체성을 이해시키고 있다.

②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주도내의 역사·민속유적지 등 현장답사코스를 주제별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답사를 통하여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③ 교양 한문서당

지역주민들에게 제주도의 한시(漢詩)를 학습하면서 지역의 예술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④ 서각교실

서각의 전통식 표현방법을 통하여 조상들의 미의식을 느껴보고 서각 내용의 의미를 되새겨 자신의 삶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설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⑤ 향토문화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관련 향토학습을 지원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이해시키며 향토문화를 이용한 취미활동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다. 제주 민요 배우기, 연 만들기 등 학교 현장에서의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⑥ 어린이 천자문 서당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박물관 야외초가에서 천자문과 전통예절을 익힌다. 학습방법도 전통식 서당학습을 재현하고 있는 심화된 프로그램이다.

⑦ 주말문화학교

중·고등학교의 클럽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45) ①~⑨의 내용은 『제주교육박물관 평생학습관 운영계획』, 2003, 2004 참조.

수 있게 한다. 전통문화와 청소년문화를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 갈천을 이용하여 현대적 감각을 살린 다양한 소품들을 만들고 있다.

⑧ 명화 감상실 운영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명화를 상영한다. 교육박물관 주변의 학생과 주민들에게 지역박물관으로서 문화적 혜택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⑨ 낙도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학습

문화 향유권에서 소외된 낙도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바르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연만들기, 천연염색 등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위에 소개된 9개의 프로그램을 교육대상별로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제주교육박물관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 연도별 | 학 생 | | 성 인 | | 성인·학생 |
|------|--|--|--|---|---|
| |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 일반인 | 교사 및 일반인 | |
| 20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문화학교 ①연만들기 ②민속놀이 ③제주민요 배우기 ④제주도설화 · 천자문한문서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문화학교 ①전통연만들기 ②토우만들기 ③문화유적지 답사 ④천연 염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한문서당 · 서체연구교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 · 전통문화강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숭아 물들이기 · 명화 감상실 |
| 20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문화학교 ①탈춤한마당 ②연만들기 ③제주도설화 ④제주민요 배우기 · 어린이천자문서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문화학교 ①제주갈천을 이용한 소품 만들기 ②방패연만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한문서당 · 서각교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 · 전통문화강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화 감상실 · 낙도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학습 |

<제주교육박물관>은 지역주민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제주만의 고유한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학생 뿐 아니라 교사 및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향토문화학교’, 중·고등학생을 위한 ‘주말문화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이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향토문화학교’, ‘주말문화학교’는 교과관련 향토학습 지원 프로그램으로 도내 초·중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제주민요 배우기, 제주도 설화, 제주 갈천을 이용한 소품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의 향토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은 제주도에 있는 역사·민속유적지, 환경보존지역 등을 주제별로 답사 코스를 개발하여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현장 체험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낙도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학습’은 문화 향유권에서 소외된 낙도민과 청소년들에게 연 만들기, 전통염색 등의 전통문화 체험을 통하여 우리 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도내 다른 박물관과 다른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제주민속촌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모두가 전시물을 직접 이용하는 체험학습이라 할 수 있다. 그 교육 대상 또한 도내 다른 박물관과 달리 청소년과 성인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지 않고, 관람객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2003년과 2004년에 실시된 프로그램들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제주민속촌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현황

| 박물관명 | 제주민속촌박물관 | | | |
|-------|--|---------|----------|-----|
| | 연도별 | 교육 프로그램 | 대 상 | 기 간 |
| 2003년 | · 설 민속행사 | 입장객 | 설 연휴 3일 | |
| | · 추석 민속행사 | " | 추석 연휴 3일 | |
| | · 동지 민속행사 | " | 동지 | |
| | · 감물들이기 행사 | " | 7~8월 | |
| | · 겨울철 민속행사 (민속음식 시연 및 시식) | " | 12월~익년1월 | |
| | · 제주의 생활문화 체험 (물허벅지기, 맷돌굴리기, 절구질 등) | " | 상설 | |
| | · 민속놀이 체험 (투호놀이, 지게발 걷기, 제기차기 등) | " | 상설 | |
| 2004년 | · 설 민속행사 | 입장객 | 설 연휴 3일 | |
| | · 추석 민속행사 | " | 추석 연휴 3일 | |
| | · 동지 민속행사 | " | 동지 | |
| | · 감물 들이기 행사 | " | 7~8월 | |
| | · 봉숭아 물들이기 | | 8월 | |
| | · 겨울철 민속행사 (민속음식 시연 및 시식) | " | 12월~익년1월 | |
| | · 제주의 생활문화 체험 (물허벅지기, 맷돌굴리기, 절구질 등) | " | 상설 | |
| | · 민속놀이 체험 (투호놀이, 지게발 걷기, 제기차기 등) | " | 상설 | |

① 세시 행사

설, 추석, 동지에 제주 고유의 명절 음식 소개 및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민속놀이 체험 등 전통 세시행사를 통해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 명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설에는 떡국 및 떡 만들기, 추석에는 송편 빚기, 동지에는 동지 팔죽 만들기를 한다.

② 계절별 민속 체험 행사

겨울철 민속 행사로는 매년 12월~익년 2월에 민속음식 시연을 하고 있다. 여름철 민속 행사는 감물 들이기와 봉숭아 물들이기가 있다. 감물 들이기는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하는 행사로 민속촌 내에 심어 있는 감나무에서 풋감(땡감)을 따고 도고리에 넣어 덩드렁마개로 빵아 옷이나 천에 감물을 들이는 전 과정을 재연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은 8월 중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름 방학이면 시골집 마당에 모여 앉아 봉선화 꽃물을 들이던 체험 행사를 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③ 민속놀이 체험

굴렁쇠 굴리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투호놀이, 지게발 걷기, 널뛰기, 그네뛰기 등의 사라져가는 민속놀이를 체험해 봄으로써 조상들의 삶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④ 제주의 생활문화 체험

제주민속촌박물관은 박물관 전 지역이 생활체험 공간이라 할 만큼 전시가옥별로 옛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의 전통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허벅지기, 땃돌 돌리기, 다듬이질, 절구질, 지게 지기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민속촌박물관>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들이 교육 대상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관람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분류를 표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제주민속촌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그 시행 시기를 중심으로 설, 추석, 동지의 세시 행사와 ‘감물 들이기’,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 등의 계절별 민속행사, 상설 체험 마당으로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인 분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분석

지금까지 제주지역에 등록된 박물관 중에서 비교적 교육 프로그램을 비중 있게 실시하고 있는 4개 박물관을 중심으로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박물관은 모두 박물관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박물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4개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전시를 통한 교육과 전시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그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IV장에서 다루게 될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 활성화 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1) 전시를 통한 교육

박물관이 학술적·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를 풍부하게 소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시란 진열인 동시에, 진열된 대상에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이 부여되면서 이를 관람객과 공유하게 되는 교육적 기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전시는 자료의 신중한 해석을 바탕으로 관람 대상의 특성에 맞게 주제별로 일반 관람객들과 학생, 연구자에게 공개되어 교육적으로 배려된다.⁴⁶⁾

다음에서는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의 전시의 내용과 특성을 파악한 후 전시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알아볼 것이다.

먼저 박물관별 전시 내용과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46)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앞의 책, 50쪽.

<표 24> 박물관별 전시 내용과 특징 비교

| 구분 | 국립제주박물관 | 제주도민속 자연사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민속촌박물관 |
|-----------------|---|---|--|---|
| 종류 | 국립(종합) | 공립(종합) | 공립(전문) | 사립(전문) |
| 소재지 (설립년도) | 제주도 제주시 (2001. 6. 15) | 제주도 제주시 (1984. 5. 24) | 제주도 제주시 (1995. 4. 29) | 제주도 남제주군 (1987. 2. 20) |
| 상설 전시실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전시실 - 선사고고실 - 탐라 I 전시실 - 탐라 II 전시실 - 탐라 III 전시실 - 조선시대실 - 기증유물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전시실 - 자연사전시실 - 제1민속전시실 - 제2민속전시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전시실 -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 제3전시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전시장 |
| 상설 전시의 특징 | <p>제주의 토착적 전통문화와 역사적 전통을 조명하며, 동북아시아의 해양 문화 교류의 축이었던 역사적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제주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여러 지역에서 수집한 역사적 문물들을 중심으로 전시</p> | <p>제주의 민속자연사 교육에 기여하고자 제주의 민속문화인 통과의례를 비롯하여 의·식·주와 생산산업의 자료를 전시하는 한편, 제주도의 형성과정과 지질암석, 해양생물, 동물, 식물 등의 자료들을 생태학적으로 전시</p> | <p>자라나는 학생들의 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열고자 제주교육에 관한 교과서, 서장, 교구, 민구 등을 활용하여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걸쳐 각 시대를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전시</p> | <p>제주 민속자료들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제주의 문화적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1890년을 기준연대로 삼아 제주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96동의 전통취락가구와 민속놀이 공연장 등 제주도 민속자료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시</p> |
| 그외 전시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전시실 · 제주국제공향작은박물관 · 야외전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전시실 · 야외전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전시실 · 특별전시실 · 야외전시장 | |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 문화의 토양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최초 인류가 등장하여 문화가 움트면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역사와 관련된 유물과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의 구성은 유물에 나타난 각 시대별 문화상의 특징이 반영된 주제를 설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제주 문화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연결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⁴⁷⁾ 6개의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야외전시장 그리고 제주국제공항 작은 박물관이 있다.

선사고고실은 화산섬 제주의 자연환경과 구석기시대부터 기원전후에 이르는 선사문화를 전시하고 있으며, 탐라 I 실에는 기원전·후부터 삼국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탐라 전기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탐라 II 실은 탐라문화의 전개와 발전을 보여주는 탐라 중기문화와 고려시대 탐라관련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탐라 III 실은 옛 지도 속 탐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주도 각지의 풍물과 군사, 지방통치 상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인 탐라순력도⁴⁸⁾가 전시되어 있다. 조선시대실에는 조선시대 통치자료와 유배자료, 제주 사람들의 생활자료, 표류와 표착에 대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기증자료실에는 개관 이래 기증된 수천여 점의 유물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교체 전시하고 있다. 야외전시장에는 제주의 해양문화를 상징하는 제주의 전통배인 ‘덕판배’ 복원품과 조선시대 매장문화를 알 수 있는 분묘 2기가 복원되어 전시되고 있다.⁴⁹⁾

이와 같이 6개의 상설 전시실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시대별로 학습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특별전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전시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중 ‘제주국제공항 작은 박물관’은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박물관은 더 이상 수동적인 교육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관람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관람객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박물관이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

47)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대광출판사, 2002, 5쪽.

48) 탐라순력도는 1979년 2월 8일, 보물 제652-6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제주시에서 소장하고 있다.

49) 국립제주박물관(<http://jeju.museum.go.kr>), 2005. 4. 20.

나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한다면, 지역주민 뿐 아니라 제주도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도 열려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국제공항이라는 장소는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장소인 공항은 다른 어떤 장소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장소인 것이다.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일반 대중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주제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제주의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전시를 한다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보다도 큰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전시 활동은 박물관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전국 유일의 민속과 자연사가 합쳐진 종합박물관으로서 제주의 고유한 민속자료와 자연사 분야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자연사 전시실은 화산섬 제주도의 형성과정과 그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질분야를 비롯하여 육상생태계의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크게 해양생물생태관, 지질암석전시장, 육상생태관으로 구분되는데, 해양생물생태관에는 제주 연근해에서 채집한 어류, 패류 등을 생태환경에 맞추어 전시하고 있으며, 지질암석전시장에는 제주의 형성과정과 화산분출 장면을 비롯하여 패류화석, 새발자국 화석 등을 전시되고 있다. 육상생태관에는 해안습지대, 상록활엽수림대, 초원지대, 낙엽수림대, 침엽수림대, 고산관목림대 모두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다. 제1민속전시실에는 제주인의 통과례, 의·식·주의 생활문화, 또한 신앙의례에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다. 제2민속전시실에는 생산생업을 주제로 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주의 사면이 바다라는 환경을 이용한 어업문화 그리고 제주의 옛 농경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다. 야외전시장에는 돌을 가공한 생활용구와 석구들이 전시되고 있다.⁵⁰⁾

특히, 상설전시 외의 특별전시는 연 3~4회에 걸쳐 자료들을 주제별, 연구결과별로 필요에 따라 기획전시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외의 이동전시는

50)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http://museum.jeju.go.kr>), 2005. 4. 20.

2000년 4월 제주공항에서 곤충사진전(昆蟲寫眞展)을 시작으로 2003년 12월까지 총 25회의 이동전시를 개최하여 도내·외는 물론 해외에까지 제주도의 민속 또는 자연의 독특한 자료들을 보여줌으로써, 애향정신을 고취시키고 제주를 홍보하고 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교육 분야의 전문박물관으로서 고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교육 변천과정의 교육자료들을 시대별로 주제를 정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학습의 장으로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제1전시실은 제주교육의 뿌리라는 주제 하에 고대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교육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탐라·고려시대의 교육, 조선시대의 사회교육과 시취제도, 근대학교의 태동, 일제하의 식민지 교육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족교육운동 자료들을 통하여 제주교육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제2전시실에는 해방 후 제주교육의 자람이라는 주제로 미군정하의 교육을 거쳐 4·3사건(1948년), 6·25동란(1950년)의 시련기를 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교육의 현장기록사진, 교수학습 자료 등과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단히 발전해 온 제주교육의 성장과정을 느끼게 하며, 나아가 세계화라는 국제적 감각에 맞게 세계 교육의 현장을 터치스크린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3전시실은 제주교육의 얼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제주교육의 선구자, 마을단위 민립학교를 설립하던 당시의 현장사진 등을 통하여 근대학교의 발자취와 근면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제주의 수놓음 정신과 조냥 정신을 보여주는 제주인의 얼 코너, 제주의 언어문화와 민요 체험 코너 등 제주의 정신을 통하여 제주 교육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야외전시장에는 제주인의 주거문화와 생활문화 등 근면한 제주인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¹⁾

상설전시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 1회 소장 자료를 조사·연구하여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기증자료 특별전을 연 2회 교체 전시되고 있다.

<제주민속촌박물관>은 야외박물관으로서 5만여 평의 대지 위에 한 시대의 생활상을 전시하고 있다. 1890년대를 기준연대로 하여, 한라산을 중심으로 고

51) 제주교육박물관(<http://jjemuseum.go.kr>), 2005. 4. 20.

지에 따라 생활양식이 달랐던 산촌, 중산간촌, 어촌, 다양했던 민간신앙의 자취를 볼 수 있는 무속신앙촌, 옛 제주관아와 어구전시관, 농기구전시관, 무형문화의 집으로 구분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 고유의 꽃과 나무를 심어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⁵²⁾

이와 같이 4개의 박물관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관람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적 배려를 하고 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전시 자료를 통하여 제주의 토착적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전통,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해양문화의 축으로서의 미래 지향적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만이 갖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고유한 생활풍습과 민속자료, 그리고 한반도와 다른 지질암석, 해양생물 등 자연사적 자료를 통하여 제주의 자연과 인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청소년들의 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교육의 변천과정을 통하여 제주교육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의 정신을 통하여 제주 교육의 미래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민속촌박물관>은 관람자들이 19세기 제주도의 산촌, 중산간촌, 어촌의 생활양식, 다양했던 민간신앙 등 생활풍속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생생한 제주의 전통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전시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를 통한 교육은 실물을 통한 교육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 부분과는 달리 학습자가 자신의 관심내용을 알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있다는 점에서 관람자의 일회성 견학과는 차이가 있다.⁵³⁾ 이러한 학습자의 목적의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박물관들은

52) 제주민속촌박물관(<http://www.jejufolk.com>), 2005. 4. 20.

53) 한은희, 『박물관 사회교육 실태 및 교육 요구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31쪽.

강좌와 체험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개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각 박물관 별로 차별화되어 있으므로, 먼저 이들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표로 작성한 다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25-1>과 <표 25-2>는 박물관별 교육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비교한 것이고, <표 26>은 그 중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만을, 그리고 <표 27>은 학생 대상 프로그램만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25-1> 박물관별 교육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비교

| 구분 | 연도별 | 학 생 | | 성 인 | 성인 · 학생 |
|-------------|------|---|-------------------|--|--|
| | | 초등학생 | 중등학생 | | |
| 국립제주박물관 | 2003 | · 어린이문화재그리기 대회 | | · 박물관 강좌 · 박물관 아카데미 · 박물관 전시실 강좌 · 특별전관련 학술강연 · 해외학자 초청강연 · 박물관 문화 강좌 · 자원봉사자 전시실 안내 | |
| | 2004 | · 어린이문화재그리기 대회 · 박물관 일일체험 ·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 | · 박물관 아카데미 · 박물관 전시실 강좌 · 박물관 전문 강좌 · 박물관 교사 강좌 · 박물관 문화강좌 · 박물관 강좌 · 특별전관련 특강 · 박물관 자원봉사자 강좌 · 박물관 전시실 안내 | |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2003 | · 박물관 어린이교실 | · 박물관 자료 그리기 대회 | · 문화유산해설사양성교육 · 갈옷 물들이기 | · 박물관 환경교실 ① 박물관탐방 ② 동굴유적 및 방어유적탐방 ③ 불교유적 탐방 ③ 오름탐방 ④ 곤충채집 및 식물탐사 |
| | 2004 | · 박물관 어린이교실 | · 박물관 환경교실 (철새탐조) | · 문화유산해설사양성교육 · 제주어바로알기문화강좌 · 박물관환경교실 ① 제주곤충 ② 제주식물생태 ③ 제주과학축전 ④ 제주의 조류자원 ⑤ 제주의 곤충자원 ⑥ 압화 시연 | · 설·추석민속 행사 · 박물관 환경교실 ① 문화유적 탐방 ② 역사유적 탐방 |

<표 25-2> 박물관별 교육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비교

| 구분 | 연도별 | 학 생 | | 성 인 | 성인 · 학생 |
|-----------|------|--|--|---|---|
| | | 초등학생 | 중등학생 | | |
| 제주교육박물관 | 20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문화학교 ①연 만들기 ②민속놀이 ③제주 민요 배우기 ④제주도설화 · 어린이 천자문 서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문화학교 ①전통연 만들기 ②토우만들기 ③문화유적지 답사 ④천연염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강좌 · 현장에서배우는문화기행 ①제주의 문화유산 답사 ②박물관.미술관 기행 ③오름답사(동부지역) ④도요지 현장을 찾아서 ⑤역사.민속박물관 기행 ⑥대정골 유적과 선사체험 ⑦오름답사(서부지역) ⑧마애명(磨崖銘)답사 · 교양 한문서당 · 서체 연구교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화감상실 · 봉숭아 물들이기 |
| | 20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문화학교 ①탈춤만마당 ②연 만들기 ③제주 민요 배우기 ④제주도설화 · 어린이 천자문 서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문화학교 ①제주 갈찬을 이용한 소품 만들기 ②전통연 만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강좌 · 현장에서배우는문화기행 ①오름답사(동부지역) ②마애명(磨崖銘)답사 ③도요지 현장을 찾아서 ④미술관 기행 ⑤신당(神堂) 기행 ⑥박물관 기행 ⑦역사 · 문화기행 ⑧오름답사(서부지역) ⑨대정골유적과 선사체험 · 교양 한문서당 · 서각교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화감상실 · 낙도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 학습 |
| 제주도민속촌박물관 | 2003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민속놀이 · 추석민속놀이 · 동지추석놀이 · 감물들이기 · 겨울철 민속행사 · 제주의 생활문화 체험 · 민속놀이체험 |
| | 2004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 민속놀이 · 추석민속놀이 · 동지민속놀이 · 감물들이기 · 봉숭아 물들이기 · 겨울철 민속행사 · 제주의 생활문화체험 · 민속놀이체험 |

<표 26> 박물관별 성인대상 교육 프로그램 비교

| 구분 | 연도별 | 성 인 | | | | | |
|-----------|------|--|-------------|-----------------|----------|---|--|
| | | 일반인 | 문화강좌 수료자 | 관람객 | 전공자 | 교 사 | 자원봉사자 |
| 국립제주박물관 | 2003 | · 박물관 문화강좌 · 특별전 관련 학술강연 · 해외학자 초청강연 | · 박물관 아카데미 | · 자원 봉사자 전시실 안내 | · 박물관 강좌 | | · 박물관 전시실강좌 |
| | 2004 | · 박물관 문화 강좌 · 특별전 관련 특강 | · 박물관 아카데미 | · 박물관 전시실 안내 | · 박물관 강좌 | · 박물관 교사강좌 | · 박물관 전시실강좌 · 박물관 전문강좌 · 박물관자원 봉사자강좌 |
| 제주도자연사박물관 | 2003 | ·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 · 갈옷물들이기 · 박물관 환경 교실 | | | | | |
| | 2004 | ·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 · 제주어 바로 알기강좌 · 박물관 환경 교실 | | | | | |
| 제주교육박물관 | 2003 | · 전통문화강좌 ·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 · 교양한문서당 · 서체연구교실 | | | | <교사와 일반인> · 전통문화 강좌 ·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 | |
| | 2004 | · 전통문화강좌 ·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 · 교양한문서당 · 서각교실 · 낙도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 학습 | | | | <교사와 일반인> · 전통문화 강좌 ·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 | |

<표 27> 박물관별 학생대상 교육 프로그램 비교

| 구분 | 연도별 | 학 생 | |
|-------------|------|---|---|
| | |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
| 국립제주박물관 | 2003 | ·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 |
| | 2004 | ·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 박물관 일일체험 ·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 |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2003 | · 박물관 어린이 교실 | · 박물관자료 그리기 대회 |
| | 2004 | · 박물관 어린이 교실 | · 박물관 환경교실 (철새 탐조) |
| 제주교육박물관 | 2003 | · 향토문화학교 ①연 만들기 ②민속놀이 ③제주 민요 배우기 ④제주도 설화 · 어린이 천자문 서당 · 명화감상실 | · 주말문화학교 ①전통연 만들기 ②토우만들기 ③문화유적지답사 ④천연염색 |
| | 2004 | · 향토문화학교 ①탈춤 한마당 ②연 만들기 ③제주 민요 배우기 ④제주도 설화 · 어린이 천자문 서당 · 명화감상실 | · 주말문화학교 ①제주 갈천을 이용한 소품 만들기 ②방패연 만들기 |

<국립제주박물관>은 박물관 특성에 맞게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관한 강좌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강좌별 난이도를 두어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박물관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이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반인을 위한 교양프로그램, 심화프로그램, 전공자를 위한 프로그램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교육시키고 이들에 대한 재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박물관이 학교교육의 확대된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현대적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00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박물관 교사강좌’가 이러한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교사를 대상으로 박물관 유물을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교육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민속과 자연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의 고유한 민속 문화와 자연생태자원의 보존과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강좌와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제주의 민속과 자연환경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프로그램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과정’이다. 박물관학을 전공하는 전문 연구 인력의 양성도 중요하겠지만, 문화유산이 있는 현장에서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박물관은 이제 관내에 전시된 유물에 대한 설명을 담당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역사적 현장이나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있는 현장에까지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은 박물관이 부족한

전문 인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유적지를 찾는 관람객에게 보다 큰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이 현장학습 위주로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난이도를 고려하거나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앞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심도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과 박물관과 교사와 학생을 연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교육박물관>은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박물관의 특성에 어울리는 특화된 향토문화 교육을 강좌와 체험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위한 ‘향토문화학교’와 중등학생을 위한 ‘주말문화학교’는 교과관련 향토학습의 지원으로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분야의 향토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박물관 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으로서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보다 강조한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1차적 답사자가 되고, 다시 그들이 길라잡이가 되어 2차 답사가 이루어지는 박물관의 사회교육적 기능을 잘 살린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또한 ‘낙도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학습’은 문화향유권에서 소외된 낙도민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는 찾아가는 박물관으로서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박물관과 다른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교육박물관의 특성에 맞는 것이기는 하나 청소년 문화와 접목시킬 수 있는 전통의 현대적 구현이라든지 미래적 전망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모색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

램 개발이 시급하다.⁵⁴⁾ 또한 교사를 위한 실질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박물관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박물관의 특성에 맞게 학교현장과 연계를 강화하여 박물관이 학교 교육의 확대된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주민속촌박물관>은 야외전시를 통해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보다 생동감 있는 전시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다른 박물관과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19세기 제주인의 생활을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열린 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주 전통생활 체험, 민속놀이 체험, 계절별 이벤트 프로그램 등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나막신 신고 다니기, 빨래 방망이 사용하기 등의 전통문화 체험과 투호놀이, 구슬치기, 비석치기, 굴렁쇠 굴리기 등 민속놀이 체험, 입춘첩 선물하기, 단오 쭉 뜯기(봄), 봉숭아 물들이기, 감물 들이기, 매미잡기(여름), 고구마 썰어 말리기, 야생화 사진전시회(가을), 전통음식 시식, 메주 만들기 등(겨울)의 계절별 이벤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지게 하고 있다. 이는 유물의 수장·전시로 국한되었던 박물관의 기존 이미지를 벗어나 점차 시민과 호흡하는 종합문화공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야외박물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시실이 필요하며, 다양한 주제를 갖고 전시할 수 있는 기획 전시실 마련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54) 강봉수, 앞의 논문, 30~31쪽.

IV.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 활성화 방안

박물관은 자료의 전시를 통한 교육에서 한걸음 나아가 각종 강좌 및 답사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전시실 밖에서의 교육과 함께, 어린이 강좌·청소년 강좌·성인 강좌 등 일반 강좌를 비롯하여 관광 종사자를 위한 강좌·교사 초청 강좌 등 제2차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 학교교육 연계 프로그램·특별 초청강연회·학술 세미나, 나아가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⁵⁵⁾

그리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배우는 전통문화의 도량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이처럼 박물관은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범위에서 교육적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주지역 박물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전시에 대한 교육적 배려

박물관이 우리 주변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이라고 할 때, 문화는 통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예술적인 표현과 사회 조직, 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 관람객이 문화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전문직원들이 인간을 둘러싼 유·무형의 자료를 총체적으로 다루며, 문화와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야 한다.⁵⁶⁾ 이와 관련한 최근의 경향은 전시에 대한 새로운 개념, 즉 유물들의 단순한 전시에서 벗어나 유물이 제작된 시대의 삶도 함께 보여주는 맥락적 전시(Contextual

55) 안광선, 『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 『박물관 학보』 1, 한국박물관학회, 1998, 227~228쪽.

56) 최중호,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박물관학연구』 창간호, 대전보건전문대학 박물관학연구소, 1996, 14쪽.

Exhibition)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전시물에 대한 방문객의 이해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역사박물관의 경우, 전시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기술의 성격을 띠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⁵⁷⁾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 모두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감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전시물을 조작해 볼 수 있는 체험학습 코너를 만들어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박물관 전시실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물들을 단순히 전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유물이 위치해 있던 현장을 직접 답사함으로써 유물을 둘러싼 주변의 역사적 사건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데, <국립제주박물관>의 2005년도 신설 프로그램인 ‘청소년 역사캠프’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시대 전체 문화에 대한 설명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물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맥락적 전시에 이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지구라는 넓은 범위에서, 한반도로, 그리고 제주도로 좁혀지는 문화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체 속에서 제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설전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특별전을 개최하여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관람객들에게 박물관은 리후렛이나 도록, 개인 안내, 가이드 투어, 시청각 프로그램, 실습 공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람객들은 이중 그들이 가진 시간과 흥미에 따라 그들에게 적합한 방법을 고를 것이다. 이것이 박물관들이 제공하는 학습기회가 관람객의 지식수준과 흥미에 적합하도록 숙고되어 선택되고 제작되어야 하는 이유다.

최근에는 참여전시(Interactive Exhibit)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인터랙티브(Interactive)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로는 상호 교환적 활동, 둘째로는 컴퓨터 등과 같은 전자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즉각적인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뜻한다. 전자의 의미로는 관람자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작동시킬 수 있는 전시물을 사용하는 경우이며, 후자의 의미로는 터치스크린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기존의

57) 안정애, 앞의 논문, 53쪽.

둘러보기만 하는 수동적인 의미의 박물관 관람이 아니라 관람객이 직접 신체적 동작을 수반하여 참여하는 보다 적극적 의미의 박물관 관람을 유도한다.⁵⁸⁾ 참여전시는 전시물이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전시로, 매우 다양한 범주의 전시형태를 포함하는데, 이들의 공통요소는 관람객이 무엇인가 만졌을 때 무언가가 벌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전시는 여러 가지 전시형식의 혼합으로 자주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일부의 박물관에서 신체적 체험의 참여전시를 제공하는 동안, 또 다른 박물관에서의 참여전시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시를 의미한다. 각종 음성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슬라이드, LD(레이저디스크), CD-ROM등을 이용하는 시청각적 참여전시 역시 여러 박물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참여전시를 정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람객의 반응이다. 단순히 관람객에게 전시물의 버튼을 눌러보게 했다고 해서 참여전시라고 하지는 않는다. 전시기획자의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관람객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을 때 즉, 관람객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 정신적 활동이 함께 일어날 때 참여전시라 부를 수 있겠다. 따라서 참여전시란 명확한 교육 목적을 가지며, 어려운 개념이나 사실·이론 등을 이·삼차 전시물을 이용한 활동적 탐구활동을 통해, 개인이나 단체 관람객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전시방법이다. 관람객들을 위해 배려되고 난이도가 조정되고 있는 참여전시는 게임과 놀이의 형태에 가까워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도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며, 풍요롭고 다채로운 전시연출로 개인마다 다른 지적 능력을 다양하게 북돋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참여전시에 관한 최근의 각국 박물관들이 보여주는 지대한 관심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쇼핑센터, 놀이공원의 화려한 공간, 각종 오락기의 편리함, 다양한 최신 레저산업에 익숙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의 새 역할 찾기의 일환이다. 이들 박물관은 그들의 관심을 소장품 위주에서 관람객 위주로 전환, 그들의 연구 성과로 얻어진 정보를 관람객과 함께 나누고 전시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 증진을 돕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

58) 황규진, 『참여박물관 참여전시의 활용』, 『박물관학보』, 한국박물관학회, 1998, 233쪽.

다.⁵⁹⁾

2. 박물관과 학교 교육의 연계활동 강화

박물관이 학교 교육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유물 등 교육 자료의 대여이고, 둘째는 학생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 셋째는 교사를 위한 박물관 교육 강화 등이다.⁶⁰⁾

1) 유물 등 교육 자료의 대여

외국의 경우 규격 상자화 된 전시물, 차트, 설명 자료를 포함하여 학교 교육 지원 계획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버팔로 과학박물관의 예를 들자면, 슬라이드 7만 9천점, 마이크로 슬라이드 2천점, 그림과 차트 1만 2천점, 상자화 된 유물과 표본을 포함 8천점의 교육 보조교재를 준비하여 학교에 대여해 주고 있다.

제주지역 박물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유물 등 교육 자료를 박물관 이외의 다른 기관, 특히 교육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교에 대여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대적 의미의 박물관이 학교 교육을 보완·보충하고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에 있어 박물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2) 학생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

박물관 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계활동에 있어 두 번째 방법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학교와의 연계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59) 황규진, 앞의 책, 42쪽.

60) 안정애, 앞의 논문, 56쪽.

박물관 교육과 학교 교육이 연계되는 예로 청소년 강좌에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박물관 어린이교실’과 ‘박물관 환경교실’, <제주교육박물관>의 ‘향토문화학교’와 ‘주말문화학교’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제주교육박물관>의 ‘향토문화학교’와 ‘주말문화학교’ 프로그램은 도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의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한 수업 지원으로 향토문화를 전문가의 강의와 더불어 직접 체험하도록 하고 있어 보다 직접적인 연계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일휴업일이 생기면서 <제주교육박물관>에서는 토요일휴업일에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서 초·중등 학생들에게 향토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박물관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내의 각 박물관은 학교가 담당해 왔던 토요일의 공식적인 교육활동을 대신하여, 박물관이라는 특색을 살리면서도 학교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교사 대상의 박물관 교육 강화

박물관이 학교 교육을 도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교사들로 하여금 박물관과 유물을 교육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캐나다 노바 소코치아주 박물관은 저녁이나 주말에 박물관 교실을 개설하고 교사를 초청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교육청에 건의를 하여 교사들의 공식적인 현직교육(In-Service Education)과 재교육 프로그램에 박물관 교육을 포함시키는 데 성공, 한 학기동안 70회 이상의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청의 월보에 박물관 특집을 기획하게 한다거나 박물관의 간행물을 교육청의 다른 발행물에 끼워 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등 학교와의 연계활동이 매우 활발하다.⁶¹⁾

61) 백승길, 『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 『경주박물관학교 40년 : 하늘도 내 교실 땅도 내교실』, 국립경주박물관, 1994, 92~93쪽.

우리의 경우에도 교사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바람직한 형태는 첫째, 국·공립박물관이나 대학박물관 등의 교사 대상의 전문 강좌를 교사 일반연수 과정에 포함시켜 이를 연수로 인정함은 물론 학점화하여 교사의 재교육에 박물관 교육을 편입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박물관에서 열리는 각종 세미나 등 관련 학술행사에 관련 교과의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박물관과 학교 당국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⁶²⁾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타 박물관들과 마찬가지로 제주 지역 박물관의 교사 대상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지역 박물관 중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국립제주박물관>의 ‘박물관 교사 강좌’와 <제주교육박물관>의 ‘전통문화강좌’를 들 수 있다. <국립제주박물관>의 ‘박물관 교사 강좌’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제주교육박물관>의 ‘전통문화강좌’는 초청강사의 특강과 현장 답사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제주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이 모두 박물관 유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개론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어서, 학교교육과 연계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교사 대상의 박물관 교육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박물관 교육전문가의 확보

박물관 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간인 것처럼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교육담당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⁶³⁾ 박물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처럼 박물관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육담당부서

62) 안정애, 앞의 논문, 59~60쪽.

63) 안정애, 앞의 논문, 60쪽.

(Education Department)와 같은 기구가 각 박물관에 설치되어야 하며, 학예 연구사(curator)와 동등한 신분의 교육전문가(educator)를 확보하여야 한다.⁶⁴⁾

박물관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학예직들은 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정리·연구에는 정진하지만 박물관의 교육활동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박물관의 부족한 교육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에 일부 박물관에서는 전문교육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규직원 이외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박물관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제주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전시실 강좌’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박물관 자원봉사자 강좌’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자의 자질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 경력 1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로 집중 교육시키는 ‘박물관 전문 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자를 박물관의 전문교육자로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양성된 자원봉사자는 관람객을 위한 박물관 전시실 안내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대안이나 보완책은 될 수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에 국가의 정책적인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4.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 성인, 교사, 주부, 노인, 장애인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프로그램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그 대상이 불분명한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또 거의 대부분의 종합박물관에서 실시

64) 김인희, 앞의 논문, 8쪽.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고고·역사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민속학·인류학·자연사·생활과학·환경문제 등으로 내용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⁶⁵⁾

제주지역 박물관의 경우 전체 박물관을 놓고 볼 때에는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개별 박물관을 대상으로 살펴 볼 경우 특정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편중되어 있거나,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의 프로그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박물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각기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박물관 기능의 한 부분인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한계성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볼 때 전통문화와 향토문화라는 주제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박물관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통의 현대적 구현이라든지 미래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겠다. 또한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개발로 참여계층의 다원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환경교실’을 통해 제주 생물자원의 보존과 환경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박물관의 커리큘럼을 결정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지역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박물관이 국민의 전반적인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와 관계된다 하더라도 박물관 교육활동 자체의 상호작용에 있어 일정한 지역적 권역이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지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을 지역주민으로 한다는 차원을 넘어, 국민문화의 향상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관련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박물관 교육은 사회교육의 측면에서는 평생교육에 포함되지만, 지역사회의 측면에서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서비스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의 지역적 요소란 하나의 문화 공동체로서의 지역의 의미로서, 그러한 점에서 중앙과 지역의 문화유산이 비교·교육되고 있는 박물관이나 활발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

65) 안정애, 앞의 논문, 65쪽.

와의 거리를 좁혀가는 박물관들의 예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라는 지역은 우리나라의 문화 중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는 또 다른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교육은 일찍부터 제주지역 박물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제주교육박물관>의 경우, 청소년대상 ‘향토문화학교’와 ‘주말문화학교’,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대상의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향토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은 제주의 방언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예가 <제주교육박물관> 제3 전시실 ‘제주의 언어문화와 민요 체험코너’이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제주어 바로알기’ 문화강좌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한편 박물관 교육을 비롯한 사회교육 자체의 성격상 일정한 커리큘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지만, 체계적인 박물관 교육에 대한 방문객의 욕구나 매년 반복해서 듣는 수강생의 더 깊이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수용해야 한다. 박물관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박물관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운영에서 더 나아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수강 이후 연구반 등 소모임이나 박물관 자원봉사회 구성 등으로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박물관 교육의 장·단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임의성이 배제된 이러한 장·단기 프로그램이 준비될 때,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은 더 충실히 수행될 수 있다고 하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앞으로 박물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모색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주지역 박물관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제주지역에 있는 박물관의 일반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중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 4개의 박물관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괄하고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4개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전시를 통한 교육과 전시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살핀 후, 다시 전시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을 그 교육 대상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제주지역 박물관들은 모두 각 박물관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박물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국립제주박물관>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강좌별 난이도를 두어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전시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중 ‘제주국제공항 작은 박물관’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도 열려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국립제주박물관>의 경우, 다른 박물관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이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교육시킬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재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박물관 전문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찾을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물관이 학교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 교육의 확대된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현대적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된다. 2004년부터 ‘박물관 교사 강좌’가 이러한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사와 한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는데 그치고 있다. 교사에 대한 교육이 전통문화나 역사의 이해를 넘어 박물관 교육과 학교 교육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의 민속과 자연사라는 두 가지 주제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전시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은 체험학습을 통해 그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제주의 민속과 자연 환경의 실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의 프로그램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과정’이다. 박물관학을 전공하는 전문 연구 인력의 양성도 중요하겠지만 문화유산이 있는 현장에서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박물관은 이제 안내에 전시된 유물에 대한 설명을 담당하는 역할을 넘어서 역사적 현장이나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있는 현장까지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그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은 박물관의 부족한 전문 인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유적지를 찾는 관람객에게 보다 큰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종합박물관으로서 제주도의 민속과 자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할 형편이다. 그러함에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체험학습과 현장학습 위주로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난이도를 고려하거나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앞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심도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된다.

<제주교육박물관>은 향토문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교육 대상을 통해 실시하고 있었다. 초등학생을 위한 ‘향토문화학교’와 중등학생을 위한 ‘주말문화학교’ 프로그램은 교과 관련 향토학습의 지원으로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분야의 향토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박물관 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설 운영된 청소년대상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교육박물관의 특성에 맞는 것이기는 하나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와 접목시킬 수 있는 전통의 현대적 구현이라든지 미래적 전망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모색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 <제주교육박물관>은 ‘전통문화강좌’와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그 대상은 교사와 일반인을 위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교사를 위한 실질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박물관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박물관의 특성에 맞게 학교현장과 연계를 강화하여 박물관이 학교 교육의 확대된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주민속촌박물관>은 야외전시를 통해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보다 생동감 있는 전시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다른 박물관과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19세기 제주민의 생활을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생동감 넘치는 열린 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전통생활 체험, 민속놀이 체험, 계절별 이벤트 프로그램 등을 상설 운영하고 있었다. <제주민속촌박물관>은 제주민속촌 풍물패 공연과 감물 들이기, 봉숭아 물들이기, 설·추석 민속행사, 민속음식 시음 및 시연 행사 등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유물의 수장과 전시로 국한되었던 박물관의 기존 이미지를 벗어나 점차 관람객과 함께 호흡하는 종합문화공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야외박물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를 갖고 전시할 수 있는 기획전시실 마련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시에 대한 교육적 배려, 박물관과 학교 교육의 연계 활동 강화, 박물관 교육전문가의 확보, 그리고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다.

첫째, 전시에 대한 교육적 배려란 박물관을 문화교육기관이라 할 때, 통상

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가치인 문화를 박물관 관람객이 온전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둘러싼 유·무형의 자료를 총체적으로 다루며, 문화와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야 한다는 관점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맥락적 전시(Contextual Exhibition)와 참여전시(Interactive Exhibit)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둘째, 박물관과 학교 교육의 연계활동 강화에서는 박물관이 학교 교육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크게 유물 등 교육 자료의 대여와 학생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 교사를 위한 박물관 교육 강화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셋째, 박물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박물관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육담당부서(Education Department)가 각 박물관에 설치되어야 하며, 학예연구사(Curator)와 동등한 신분의 교육전문가(Educator)를 확보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넷째,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방안에서는 박물관 교육에 있어 교육의 대상 뿐 아니라 교육 내용 또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 성인, 교사, 주부, 노인, 장애인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 대상의 층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박물관 교육에 대한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박물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박물관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 강사를 확보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종합박물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고고·역사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민속학·인류학·자연과학·생활과학·환경문제 등으로 내용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물관이 교육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주지역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제주지역 박물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박물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자료

- 강성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박물관학교 만들기』, 문음사, 1997.
- 국립민속박물관, 『1997년 국립박물관연보』, 1998.
-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대광출판사, 2002.
- 문화체육부, 『국제박물관협의회 규정집 : 정관·전문직원 윤리 요강』, 1994.
- , 『한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출판 피아, 1997.
- 이난영, 『박물관학입문』, 삼화출판사, 1993.
- 이요섭, 『한국의 특수박물관』, 도서출판 세시, 1994.
- 제주교육박물관, 『연보』 제2호, 1997.
-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초등 교과교육과 박물관 교육』, 2004년도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5.
- 제주교육박물관, 『교육박물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2001.
- , 『제주교육박물관 평생교육 운영의 실제』, 2002.
- , 『제주교육박물관 평생교육 운영의 실제』, 2003.
- , 『제주교육박물관 업무편람』, 2003.
- , 『제주교육박물관 운영계획』, 2003.
- , 『제주교육박물관 운영계획』, 2004.
- 제주민속박물관, 『유물의 향기』, 2005.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개관20년사』, 2004.
-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2003.
- 허완·김제곤, 『별난 박물관, 별난 이야기』, 도서출판 산하, 1997.

2. 논 문

- 김인회, 「박물관 교육의 정신사적 의미」, 『교육철학』 18집,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1997.
- 김인회, 「박물관 교육의 필요성과 동향」, 『교육개발』 114호, 한국교육개발원, 1998.
- 김종혁, 「한국의 박물관과 세계의 박물관」, 『문화예술』, 1993.
- 문연수, 「교육적 관점에서 본 박물관 커뮤니티케이션의 이해」,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백승길, 「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 『경주박물관학교 40년 : 하늘도 내 교실 땅도 내 교실』, 국립경주박물관, 1994.
- 송준영, 「역사 수업에 있어서 박물관 교육의 방안」, 『고문화』 제46집, 한국박물관협회, 1995.
- 안광선, 「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 『박물관학보』 1, 한국박물관학회, 1998.
- 안정애,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오상현, 「서울역사박물관의 초등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평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태호, 「현단계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진단과 전망 : 국립박물관의 전시행위와 강좌 운영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18집,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1997.
- 이해주, 「박물관의 사회교육적 기능과 그 개선방향」, 『사회교육학연구』 제5집, 사회교육학연구회, 1999.
- 이해준, 「박물관의 현황과 문화교육정책」, 『교육철학』 18집,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1997.
- 임경미, 「문화교육으로서의 박물관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정광중, 「지역 박물관을 활용한 사회과 현장학습의 실제 : 제주교육박물관 야외전시장을 사례로」, 『초등교육연구』 5권,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0.
- 최종호,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박물관학 연구』 창간호, 대전보건전문대학 박물관학연구소, 1996.
- 한은희, 「박물관 사회교육 실태 및 교육요구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함동희,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현황분석 및 방향 제시 : 노인층 인력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황규진, 「참여박물관 참여전시의 활용」, 『박물관학보』, 한국박물관학회, 1998.

<Abstract>

Educational Function of Museums in Jeju Area And the Ways To Activate the Function

Jung, Young-im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Chang-Seok

As a place where we can see the history and culture of a country, a museum makes the place for community education providing various programs by using its facilities and materials. Every walk of life, from children to old people, can join the programs when necessary and get some interest and curiosity to raise their consciousness of self-study. That's why a museum is important as a community education center. A museum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enables citizens to properly figure out our cultural heritage, build up ability and attitude to care and preserve relics, and identify the identity of local culture as well.

Although it has been emphasized that museums are valuable places for community education, the museums of our country have not been able to secure professional educators till now.

Realizing this problem, in this study I analyzed present state and actual conditions of education program operation at four museums in Jeju area, which are sincerely carrying out the educational func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display of each museum was constructed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5.

in accordance with its characteristics and the displayed materials were managed in the form of reflecting aspects of each era with explanation. In case of Jeju National Museum, it was providing education programs classified by the degree of difficulty in order to lead citizens from various walks of life in Jeju to attend the different high-quality courses on Korean history and culture. Jeju-Do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was operating the education programs focused on hands-on experiences and field trips to meet two kinds of theme - the folklore and the nature of Jeju. Jeju Education Museum was offering a variety of education programs to educate juveniles and adults on the native culture. The programs especially for juveniles supported the study on native place related to school curriculum and fortified the connection between education at museum and school education. Finally, Jeju Folk Village Museum attracted visitors' interest and attention through the materials displayed outdoors with hands-on experiences about the life in Jeju in the 19th century.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I suggested the ways to activate the educational function of museums in Jeju area as follows:

First, the display of materials should be constructed considering education so that visitors can understand the materials. If a museum wants to be a representative cultural center, in order to have visitors wholly figure out and appreciate the culture which is generally invisible and non-material value, skillful staff should treat tangible and intangible stuff around human beings as a whole, verifying the correlation between culture and environment.

Second, museum activities related to school education should be intensified. In order to support school education, museums should search for various ways such as lending the relics as teaching materials, carrying out education programs for students, and strengthening the education at museum for teachers.

Third, for the future of museums, each museum should set up Education Department which handles education at museum professionally

and secure Educators who have the equal position to curators.

Fourth, the contents of education at museum as well as the learners should systematically be treated. The regulation on who can take an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efined because education programs at museums are open to various walks of life. In addition, each museum will have to develop specialized programs suitable to its characteristics through the net-work linking museums, securing experts to operate high-quality programs to satisfy the needs of demanders.

I suggested the ways to activate education at museum by analyzing the education programs under operation in Jeju area as above-mentioned.

I hope that many different and specific ways to activate the education at museums in Jeju area will b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is study.